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이해

- 陰陽合德을 중심으로 -

金正泰*

目 次

- | | |
|----------------------|---------------------|
| I. 머리말 | 나. 역전(易傳)의 음양사상 |
| II. 음양의 개요 | 다. 신유학(新儒學)의 음양사상 |
| 1. 사전적 의미와 변천과정 | III.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합덕 |
| 2. 문헌에 나타난 음양개념 | 1. 대순진리의 음양론 |
| 3. 음양가의 성립과 음양관념의 전개 | 2. 대순진리의 합덕론 |
| 가. 음양가의 성립 | 가. 덕(德)의 의미 |
| 나. 음양개념의 전개 | 나. 합덕의 의미 |
| 4. 동양전통의 음양이론 | IV. 맺음말 |
| 가. 도가(道家)의 음양사상 | |

I. 머리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사상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교리체계가 대단히 방대하고 동시에 심오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접근과 이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교리체계를 쉽게 전달하고 동시에 그것의 취지나 목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적을 일반인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를 함축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宗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지에 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하나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교리를 간단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동시에 특정한 종교의 사상이 지니는 전반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의 성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지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순진리의 종지¹⁾인 음양합덕의 탐구를 통해 대순진리를 좀 더 바르게 인식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대순진리가 지니는 전반적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양합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의 종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것을 통해 대순진리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순진리의 종지가 지니는 특성²⁾을 감안해 본다면 음양합덕의 이해를 통해 전반적인 교리를 살피는 것은 결코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닐 것이므로, 부분적 이해를 통해 전체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음양합덕은 대순진리의 특징적 교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과 유사한 표현 내지는 음양사상은 의미와 내용은 이미 기존에 나타나 있는 것이므로,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바른 특성과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나타난 음양관념의 특성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 음양합덕이 지니는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것의 연구방법으로는 음양합덕이 음양을 그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음양합덕의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음양합덕의 논의에 앞서 陰陽에 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1) 대순진리의 종지는 陰陽合德 · 神人調化 · 解冤相生 · 道通眞境이다.

2) 종지는 단순히 배분적 특징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지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적 특징은 대순진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종지는 상호 충분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고리의 연결을 통해 종지의 개별적인 설명이 바르게 설명되고 이해가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拙稿, 「대순사상논총」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학술원 제1집) 참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양의 전반적인 개요를 통해 음양의 사전적(辭典的) 의미와 그것이 변천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상체계를 살펴보고 동양사상에 나타난 전통적인 음양이론을 대표하여 그것을 도가(道家)와 역전(易傳), 그리고 신유학(新儒學)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나타난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한 음양이론을 통해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수용·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이해를 위해 우선 그것을 음양과 합덕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³⁾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음양에 관한 이해를 위해 『전경』의 「음양경」에 나타난 내용에 한정하여 음양의 의미를 살피고 그 뒤에 『전경』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합덕 또는 그와 유사한 관련성을 지니는 내용의 고찰을 통해 음양합덕이 지니는 전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동시에 이를 통해 음양개념이 대순진리 안에서 어떻게 수용 발전되었으며, 음양합덕이 지니는 진정한 특성과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전반적인 교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결론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음양(陰陽)의 개요(概要)

1. 사전적 의미와 변천과정

‘음양(陰陽)’ 두 글자의 의미를 『설문해자(說文解字)』 부부(阜部)에서 찾아 보면 “음(陰)은 어둡다는 의미와, 산의 북쪽을 가리킨다. 또한 ‘부(阜)’자(阜의 옛날글자)를 합하고 ‘음(隞)’을 음(音)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양(陽)은 높고 밝다는 의미를 지니며, ‘부’자를 합하고 ‘양(陽)’을 음(音)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양에 나타난 부방(阜旁)은

3)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면 종지는 4자의 漢字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대부분 2개의 명사가 복합되어 나타나 있다. 즉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기존의 경우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며, 대순진리의 종지가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종지의 표현적 특성에는 어떤 일련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음양합덕을 음양과 합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후대에 붙여진 것이므로, 원래의 글자는 ‘음양(陰陽)’이라고 할 수 있다.

‘음(陰)’에 들어 있는 ‘운(云)’자는 옛날의 ‘운(雲)’자이다. 따라서 ‘음(陰)’의 본의는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이며, 그것이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가린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 무엇이 무엇을 가리면 반드시 어두우므로 그 의미가 다시 확대되어 어둡다는 뜻이 되었다. 해를 등지고 있는 곳은 어둡기 마련이며, 성시(城市)는 대부분 북쪽에 기대어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다시 확대되어 뒤쪽이나 이면(裏面) 혹은 북쪽이라는 뜻이 되었다. 이것이 ‘음(陰)’자의 의미가 변천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陽)’은 ‘일(日)’자와 ‘일(一)’의 자를 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해가 땅위에 있는 모습이므로, 일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물(勿)’자와 합한다고 하였는데 『설문해자』에서는 “물(勿)은 마을에서 내거는 깃발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즉 해가 땅위로 떠올라 깃발을 내걸면 그 깃발이 매우 힘차게 날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양(陽)자의 본래적 의미이다. 따라서 후대에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해의 광채를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해를 ‘태양(太陽)’, 아침해를 ‘조양(朝陽)’, 저녁 해를 ‘석양(夕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해가 뜨면 따듯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 의미가 확대되어 따듯한 기운을 양기(陽氣)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해를 향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다시 앞쪽이나 표면(表面) 혹은 남쪽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양(陽)’자의 의미가 변화해온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서로 대대(對待)가 되므로 ‘음양’ 두 글자가 연용(連用)될 때에는 항상 남쪽과 북쪽 혹은 표면과 이면의 의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陰)과 양(陽)이란 글자는 본래 阝(좌(左)부방)을 떼어버린 음(陰)과 양(陽)으로서, 음(陰)이란 구름은 보이고 해(日)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며, 양(陽)이란 구름이 걷혀 해가 보이는 것을 뜻하는 글자였다. 그런데 음(陰)과 양(陽)에는 산(山)을 의미하는 부(阝)가 첨가되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음(陰)과 양(陽)이 되어 산의 양지쪽과 음달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음과 양은 기상현상의 명(明)과 암(暗)에서 비롯된 대우적(對偶的)인 것이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문자학(文字學)의 관점에서 본 ‘음양’의 원시적 의미를 서복관(徐復觀)을 중심으로 한 몇몇 학자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해자 제 11편·하 운부(雲部)에서는 “음(黔)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이다.”⁴⁾ ‘운(雲)’자를 합하고 ‘금(今)’자를 음(音)으로 한다고 하였고, ‘음(隤)’자는 고문(古文)에서의 ‘음(黔)’의 생략된 글자라고 하였고, 단옥재(段玉裁)는 그에 대해 “오늘날의 음양이라는 글자는 소전(小篆)에서 ‘음양(黔易)’으로 쓰여졌다”고 하였다. 또 같은 책 물부(勿部)에서 “양(易)은 연다는 의미이며, ‘일(日)’자와 ‘일(一)’자 그리고 ‘물(勿)’자를 합하여 날린다, 길다, 굳센 것이 많은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였고, 단옥재는 그에 대해 이것이 음양(陰陽)의 정자(正字)이다. 음양이라는 글자가 쓰여지면서 음양(隤易)이라는 글자는 없어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음(黔)’이 구름이 해를 가린 뜻이라고 했는데,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두우며, 서개(徐鍇)는 “산의 북쪽, 강의 남쪽은 해가 들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음(陰)’이라는 글자로 전성(轉成)된 것이다. 『설문해자』 제 14편·하 부부(阜部)에서는 “‘음(陰)’은 어둡다는 의미이다. 강의 남쪽, 산의 북쪽을 가리킨다.

‘부(阜)’자를 합하고 ‘음(隤)’자를 음으로 한다”고 하였고, 허신(許慎)은 ‘음(隤)’이 형성문자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부(阜)’와 ‘음(隤)’이 합해졌고, ‘음(陰)’을 음으로 하므로 실상은 회의문자 겸 형성문자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양(易)’자에 대한 허신의 해석에 대해서는 왕균(王筠)은 이미 『설문석례(說文釋例)』를 통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생각건대 (易자에) ‘일(一)’자가 합해진 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勿)’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단지 양기가 땅 위로 창발하여 모습을 들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수정을 가하였다. 이에 서복관(徐復觀)은 “‘물(勿)’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왕균의 견해는 대단히 옳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지 “양기가 땅 위로 창발하여 모습을 들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양(易)’자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아직 그러한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해가 땅 위

4) 說文解字에 따르면 음(隤)은 “雲覆日也”. 로 나타나 있다.

로 솟아올라 빛을 드리우는 것이 ‘양(陽)’이다. 그리고 해가 빛을 드리우면 밝고, 산의 남쪽과 강의 북쪽은 별이 잘 드는 곳이기 때문에 ‘양(陽)’이란 글자로 전성되었다. 『설문해자』 제 14편·하 부부(阜部)에서는 “양(陽)은 높고 밝다는 의미이다. ‘부(阜)’자를 합하고 ‘양(陽)’자를 음으로 한다” 고 하였다. 이 글자 역시 회의문자 겸 형성문자로 보아야 한다.

『설문해자』에 산의 남쪽과 강의 북쪽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단옥재는 ‘음(陰)’자의 해석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설문구독(說文句讀)』에서는 그 설명이 빠진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음양’ 두 글자는 ‘일(日)’이라는 글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원래 햇빛이 있거나 없는 두 가지 날씨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육서정와(六書正譌)』는 “음양(陰陽)은 천지의 기(氣)로써 말 한 것이고, 음양(陰陽)은 산이나 강의 남쪽 북쪽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뒤의 말은 옳지만 앞의 말은 그렇게 분명한 말이 아니다. 햇빛이 있거나 없는 날씨는 임시적인 현상인데 반해, ‘천지의 기’라는 것은 자연의 기본원소이다. 그러므로 양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음양’ 두 글자는 ‘음양(陰陽)’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비록 ‘음양(陰陽)’이라는 글자가 쓰여지면서 ‘음양(陰陽)’이라는 글자는 없어졌지만 이후 음양관념과 관련 있는 글자의 원의(原義)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고 하였다.⁵⁾

그런데 이러한 음양관념은 중국의 문화 속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의 영향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지녔다. 음양을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춘추시대(春秋時代)가 되어서야 비로소 철학함의(哲學函義)의 음양관념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음양을 기(氣)로 보는 것이었다. 음양을 기(氣)로 보는 관념이 출현한 후에, 음양은 이미 하나의 실물(實物)인 것으로 되어, 곧 우주론(宇宙論)의 의의(意義)를 함유하게 되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있어서 음양을 만물의 근본으로 보는 사상의 시발은 바로 기화(氣化)의 음양관념의 기초에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양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사상은 음양이 우

5) 양계초, 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신지서원, 1993) 29쪽~58쪽 참조

주론과 관련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후에 계사전(繫辭傳)⁶⁾이 나타나면서부터 음양을 천도(天道)와 함께 결합시켜 도덕형이상학에 관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송대(宋代)의 이학가(理學家)들은 음양을 혼합하여 해석하지 않게 되고 음(陰)과 양(陽)의 특성 및 음과 양 두 가지의 교호관계(交互關係)에 대해서 진일보한 설명이 있게 되었다. 음양과 오행(五行)⁷⁾의 학설은 본래 각자의 내력이 있었으나, 두 가지를 융합하여 하나로 한 것은 추연(鄒衍)이 창안한 설(說)이다.

음양이 서로 연속된 하나의 명사가 되고 무형무상한 두 가지 대대적인 성질을 가리키게 된 것은 대체로 공자(孔子) 혹은 노자(老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 이전의 전적 중에서 확실히 고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의례(儀禮)』, 『역경(易經)』의 궤사와 효사등이다.

2. 문헌에 나타난 음양개념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헌에 나타난 음양개념의 내용을 통해 음양관념의 변천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경(詩經)』

어둑어둑한 그늘「陰」이며, 우르르 울리는 우레로다. (「邶風·終風」)

화기로운 골짜기 바람이 그늘「陰」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나니. (「邶風·谷風」)

수레 앞턱나무에 끈을 묶되「陰鞵」 매듭 위에 백금 고리를 씌우고 (「秦風·小戎」)

6) 역(易)의 궤(卦)와 효(爻)를 설명한 글.

7) 추연(鄒衍) BC 305 ? ~ BC 240 ?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제(齊)나라 사람으로, 추연(騶衍)이라고도 쓴다. 음양오행설을 주창하고, 자연과 인사(人事)에 관련한 모든 사상을 음양과 오행상생 원리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추연은 역사(歷史)도 오행의 성쇠 원리로 변하며, 이에 의해 역사의 추이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 전통의 중국 중심 지리 관에서 벗어나 중국이 천하의 1/81에 불과하다는 대구주설(大九州說)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음양오행설은 『여씨춘추』와 동중서(董仲舒)의 사상체계에 영향을 미쳤고, 『주운편(主運篇)』을 저술하였다. 『한서』, 『예문지』에 『추자(鄒子)』, 『추자종시(鄒子終始)』 등의 책을 썼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서울:동서문화사, 1996), 26권 15518쪽.

어여쁜 기장 싹을 어두운(陰) 비가 살찌우니(「曹風·下泉」).

임이 의기양양「陽陽」, 왼손에는 생황을 잡고 방을 통해 오른쪽으로 나를 부르니(「王風·君子陽陽」)

내가 외삼촌을 배웅하여 위수 북쪽「陽」에 다다랐네 (「秦風·渭陽」)

봄별이 비로소 따뜻해져서「陽」 (「豳風·七月」)

『서경(書經)』

기러기「陽鳥」가 서식하는 곳이다. (禹貢)

화산(華山)의 남쪽「陽」, 으로부터 흑수(黑水)까지가 양주(梁州)이다. (같은 곳)

민산(岷山)의 남쪽「陽」 (같은 곳)

하늘이 은밀히「陰」 아래 백성을 정하여 (洪範)

이에 혹 어두운 여막「亮陰」에 거하면서 (無逸)

『주역(周易)』 의 효사

우는 학이 그늘에 있으니 그 새끼가 화답한다 (「中孚」九二)

이와 같이 고대 문헌은 통해 나타나는 음양과 관련한 구절은 시경에서 '음'은 8회, '양'은 14회, '음양'은 1회에 걸쳐 나타나며, 서경(書經)에서는 '음', '양'이 각각 3회에 걸쳐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장자(莊子)가 『역』은 음양을 말하였다. 고 소개하였으나 주역의 효사 중에서는 앞서 살핀 한곳에서만 '陰'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계사전과 설괘전, 문언전에서는 음양을 논의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8) 계사전, 설괘전, 문언전에 나타나고 있는 음양에 관한 언급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양'괘에는 '음'이 많고 '음'괘에는 '양'이 많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양'괘는 기수(奇數)이고, '음'괘는 우수(偶數)이기 때문이다.

건은 '양'물이고, 곤은 '음'물이다. '음양'이 덕을 합하여 강유에 체(體)가 있게 된다.

'음양'의 뜻은 일월과 짝하고, 이간(易簡)의 선함은 지덕(至德)과 짝한다 (이상 「계

이상에 근거할 때 은주시대(殷周時代) 이전에 나타나는 음양은 자연계 속에 하찮고 미세한 현상에 불과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음양 두 글자의 의미가 비약적으로 변화된 것은 뒤에 다시 언급이 있겠지만 노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⁹⁾

3. 陰陽家의 成立과 陰陽觀念의 展開

가. 음양가의 성립

모든 경전과 공자(孔子), 노자(老子), 묵자(墨子), 맹자(孟子), 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 등 모든 사상가들도 음양에 관한 언급이 춘추전국시대 이전은 음양이라든지 오행이라는 말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그 의미도 극히 평이한 것이었으며, 음양이 함께 연용된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邪說)을 지어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시원은 대개 연 나라와 제나라의 방사(方士)에게서 비롯되나 그 이론을 구축하고 전파한 사람은 주연과 동중서¹⁰⁾, 유향¹¹⁾이다.

사전).
 '음양'에서 변화를 보고 괘를 세웠다.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서 강(剛)과 유(柔)라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仁)과 의(義)라고 한다 (이상「설괘전」).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는 것은 '양'기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음'은 비록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음'이 '양'과 비슷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 '양'이 없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이라고 칭한다(이상「문언전」).

9) 『老子』 42장에는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는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만물과 음양을 밝힌 것으로 기존의 음양관념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크게 확대되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10) 董仲舒 BC 170 ? ~ BC 120 ?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유학자. 허베이성(河北省) 광저우현(廣州縣) 사람. 무제로 하여금 유교에 의한 사상통일 정책을 취하게 했다. 어려서부터 『春秋公羊傳』을 익히고, 경제(景帝)를 때에는 박사가 되었다. 그의 저서 『春秋繁露』는 공양사상에 의한 春秋의 해석으로, 前漢의 금문학 사상을 엿보게 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기능의 일치가 성립되어 양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철학상의 입장에 서서 행정조직은 물론 정치사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경제 정책으로서 한전(限田)·노예해방을 주창하여 국가권력의 집중화를 피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다. 『董子文集』 등의 저서가 있다.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8권 4455쪽.

11) 劉向, BC 79 ? ~ BC 8 ?. 중국 전한(前漢) 말기의 학자. 자는 자정(子政), 이름은 갱생(更生). 고조(高祖)의 이복동생 유교(劉交; 楚元王)의 4세 손이다. 젊어서부터 재능이 있었고 선제(宣帝, 재위 BC 74 ~ BC 49)에게 기용되어 간대부(諫大

『사기(史記)』 「맹자순경열전(孟子筍卿列傳)」을 보면

“추연은 …음양의 운동을 깊이 관찰하여 괴이하고 우랄한 학설을 만들어 내고, 『종시(終始)』, 『대성(大聖)』 등 십여 만 언의 저작을 저술하였다”

는 말이 있고, 이어 『봉선서(封禪書)』에서는

“제나라 위왕, 선왕 때부터 추연의 무리는 오덕종시(五德終始)의 운행에 대해서 논술하였는데, 진나라때 제나라 사람이 그것을 상주하였다”

고 하였고, 『문선(文選)』 「위도부(魏都賦)」의 주(注)에는

『칠략(七略)』을 이용하여 “추연에게는 오덕종시의 설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 변화한다. …” 한서 예문지(漢書 藝文志)

추연이 만들어 낸 음양사상은 진한시대라는 학문적 쇠퇴기를 맞아 광란의 기세로 모든 사상계를 휩쓸었다. 그 후 동중서는 이 천년 동안 순유(醇儒)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의 저술은 음양가의 사상을 조술(祖術)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한서』 「오행지(五行志)」에서는

“한(韓)나라가 흥하여 진(秦)나라에 의해 사라진 학문을 다시 이었으며, 경제(景帝)·문제(文帝) 때에 동중서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연구하여 처음으로 음양을 추론함으로써 유자의 으뜸이 되었다. 유향은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을 연구하여 그 화복을 헤아리고 「홍범(洪範)」을 전함으로써 동중서와 함께 하게 되

夫)가 되었으며, 수 십편의 부송(賦頌)을 헌정했다. 신선방술에도 관심이 많았고, 황금주조를 진언하다 실패하여 하옥되었으나, 부형의 구명운동으로 죽음을 면했다. 뒤에 다시 선제의 부름을 받았고, 석거각(石渠閣)에서 오경동이(五經同異)의 논쟁에 곡량춘추파의 일원으로 등용되었다. 그는 상고(上古)에서 진한(秦漢)에 이르는 부서재이(符瑞災異)의 기록을 모아 『洪範五行傳論』 11편을 저술하여, 상주(上奏) 했다. 또 편저서에 『說苑』 『新序』 『列女傳』 『戰國策』 및 궁중도서를 정리할 때에 지은 『別錄』 등이 있다. 유향의 아들 유흠이 이 서적을 통해서 『七略』을 지었고, 이것이 뒤에 『漢書』 『藝文志』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오늘날 전하고 있다. 『한서』에 (傳記)가 있다. 위의 책, 21권 12174쪽

었다. 유향의 아들 유흠(劉歆)에 이르러서는 ……『오행전(五行傳)』에서 말한 것도 서로 상이하였다. 이 때문에 동중서를 취하고 유향과 유흠을 구별하며……그 행사를 진술한 것은 ……책에 드러나 있다”

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음양오행학은 동중서에서 시작되어 유향, 유흠父子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陰陽觀念의 展開

가. 춘추시대의 음양관념

『시경』의 시대를 잇는 것이 춘추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춘추시대 242년 동안 여러 가지 문화관념은 풍부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음양관념도 이에 편승하여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16년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송나라에 운석이 다섯 개 떨어진 것은 운성(隕星)이었다. 여섯 마리 익조(益鳥)가 거꾸로 날아서 송나라의 서울을 지나간 것은 바람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주나라 내사(內史)인 숙흥(叔興)이 송나라를 방문하였다. 양공(襄公)이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길흉이 어느 나라에 나타날 것인가’라고 물었다. 숙흥은 ‘이제 노나라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물러 나와 사람들에게 ‘양공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음양의 일이지 길흉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 뜻을 읽을 수 있다.

첫째, 길흉에 대한 축사(祝史)들의 언급은 환경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조작해 낸 것이지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여기에서 말하는 음양은 『시경』시대를 계승하여 날씨를 가리킨 것이며, 이른바 음양의 일이라는 것은 날씨가 불규칙하다는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사(人事)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숙흥은

“길흉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음양이 후대처럼 천도(天道)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천도와 인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속흥의 내용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춘추시대에 이루어진 음양관념의 가장 큰 발전은 음양을 천(天)이 생성한 육기(六氣)중에 이기(二氣)로 파악한 것이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음양의 본래적 의미는 햇빛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또한 시경시대의 음양관념은 날씨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 즉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감각적 표현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념은 전대(前代)의 관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양은 하늘이 생성한 기운으로 이해되었으므로 음양 자체가 이미 실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로 인해 그것은 더 많은 작용과 영향을 낳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춘추좌씨전』¹²⁾ 「소공」원년의 한 기사이다. 거기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논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진(晉)나라의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진(秦)나라에서 의사를 구하였다. 秦의 임금은 의화(醫和)를 보내어 병을 보도록 하였다. 의화가 말하기를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하늘에는 육기(六氣)가 있다. 그것이 하강하여 오미(五味)가 되고, 발하여서는 오색(五色)이 되고, 드러나서는 오성(五聲)이 되고, 질서를 잃으면 육질(六疾)이 된다. 육기란 음(陰)·양(陽)·풍(風)·우(雨)·회(晦)·명(明)이다. 그것이 나누어 지면 사시(四時)가 되고, 질서를 갖추면 오절(五節)이 되고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음이 지나치면 한질이 생기고, 양이 지나치면 열병이 생기고, 풍이 지나치면 수족병이 생기고, 우가 지나치면 뱃병이 생기고, 회가 지나치면 심란증이 생기고, 명이 지나치면 마음병이 생긴다. 여자는 양물(陽物)이고,(여자와의 교접은)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나치면 몸에 열

12) 춘추(春秋-역사서)를 해설한 춘추삼전(春秋三傳) 중에 하나로 『좌씨춘추』 또는 『좌씨전』이라고도 한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저자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처음으로 소개된 시기는 전한 말기이다. 『공양전』과 『곡량전(穀梁傳)』이 『춘추』에 쓰여진 공자의 정신을 순리적으로 해석한 데 반해 이 책은 춘추시대의 사실(史實)에 입각해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문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왕을 절대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금 전하는 것은 전한 말기 유희등이 편찬한 것이고, 원본은 소실되었다.

병이나 정신병이 생긴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음양관념이 발전하여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 그 이전보다는 많은 기능이 포함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후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물을 형성하는 기본 원소로까지 정립되지는 않았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그것은 만물의 배후 혹은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만물을 포괄하는 천지의 공간에 위치 지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목구비 등 인간의 감각기관이 접촉할 수 있는 구체적 존재였으므로 후대의 음양이기(陰陽二氣)와 같이 감각기관이 접촉할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춘추좌씨전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춘추시대의 음양관념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음양은 천지사이 실제로 존재하는 육기(六氣) 중에 두 가지 성질의 기(氣)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음양의 기가 사람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음양이 인간과 관련을 맺는 것은 후대에 음양이 남녀를 상징하는 것이 되면서 이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b. 전국시대의 음양관념의 변화 및 『역전(易傳)』의 발전

음양의 본래의 의미가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춘추시대에는 이미 태양을 양으로 생각하였다. 또 시경과 춘추시대에는 날씨의 한난(寒煖)을 통해 음양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곧 사시(四時)의 발생과 연계되었다. 그리고 태양과 사시는 모두 사관(史官)이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음양관념은 아마도 천문·역상을 주관하는 사관에 의해 발전되어온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춘추시대의 음양과 관련된 언급들은 거의 사관에게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음양관념의 결정적인 변화·발전은 대개 『역전(易傳)』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 영향을 가장 빨리 받은 것은 오히려 도가(道家)였으므로, 궁극적으로 음양학설은 모든 학파의 공통적인 승인을 얻게 된다.

묵자(墨子)는 공자나 노자보다 후대의 인물로 현존하는 『묵자』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음양이라는 명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사과(辭過)」의

“천지의 사이를 둘러싸고 사해의 안을 포괄하여 천지의 정(情)과 음양의 조화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천지에서는 상하라고 하고, 사시에서는 음양이라고 한다”

라는 구절이며, 또 하나는 「천지중(天地中)」의

“이 때문에 하늘이 추위와 더위를 이루는 것에는 절도가 있고, 사시는 조절되며, 음양과 우로(雨露)는 때를 맞는다”

라는 구절이다. 『묵자』 중에서도 이 두 편은 초기의 문헌이다. 이 두 군데에서는 음양은 춥고 따듯함으로 시절의 순서를 가르다는 함의를 가질 따름이다. “사시에서는 음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시의 춥고 따듯함으로 나누어진다”는 의미이다. “음양이 때에 맞는다”는 것은 또 “추위와 더위가 그 때를 얻었다”는 의미이다. 이것들은 모두 춘추시대의 관념에 속한다. 음양을 통해 자연의 조화를 말하는 것은 『묵자』의 초기 문헌에서 보이지 않은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묵자학파의 발전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대단히 간단하다. 묵자는 천지(天志)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천지(天志)를 주장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격신적인 천(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묵자는 음양과 사시, 우로, 등을 천지(天志)의 표현으로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천을 대신하여 조화를 실행하는 힘으로서 음양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묵자』에서 언급되는 음양은 다른 상관된 사물-예컨대 우로(雨露)보다 부각되지도 않는다.

음양과 관련하여 가장 기이한 것은 유가계통 중에서는 『논어(論語)』에 음양관념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사(子思)의 저서라고 인식되는 『중용(中庸)』이나 전국시대의 작품인 『맹자』에서도 음양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장자』 「천하(天下)」에서는

“『역(易)』은 음양을 말한 것”

이라고 하였고, 또한 『예기(禮記)』 「제의(祭義)」는 『』 「천하」의 영향을 받아서

“옛날에 성인이 음양·천지의 정(情)을 세워서 그것으로 『역』을 만들었다”

고 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주역(周易)』을 음양 사상의 연원 또는 집합체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뒤에 논의하는 것처럼 음양관념을 통해서 『주역』을 해석하는 것은 역학 발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일이다. 아마도 이러한 발전은 『역전(易傳)』 자체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순자(荀子)의 음양관념을 살펴보면 『순자』 「예론편(禮論篇)」에

“...그러므로 천지가 합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음양이 접해서 변화가 일어나며, 본성과 작위를 합해서 천하를 다스린다”

는 말이나, 「천론편(天論篇)」에

“이것은 천지의 변화이고, 음양의 조화이다”

라는 말이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음양은 실제적으로 천지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순자는 “하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므로 음양관념이 그와 집적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이상의 간단한 서술을 통해 선진시대(先秦時代)의 유가는 일반적으로 음양조화의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양관념을 통해 『주역』을 해석하는 것이 후대에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역』의 괘사와 효사 중에 음양의 관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¹³⁾ 『춘추좌씨전』이나 『국어(國語)』의 「서사(筮辭)」에서도 각 괘가 상징하는 구체적 사물의 상호 연관을 통해 길흉을 판단하는 식의 해석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

13) 「중부(中孚)」九二爻의 “우는 학이 그늘(陰)에 있다” 에서의 ‘음’은 어둡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후대의 음양관념과는 차이가 있다.

다. 가령 『춘추좌씨전』 「장공(莊公)」 22년에는 “주나라의 태사 중에 『주역』을 가지고 와서 진(陣)나라 임금을 뵈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진나라 임금이 점을 치게 하였더니 관괘(觀卦)가 부괘(否卦)로 변하는 것을 얻었다”는 기사가 있다.

『주역』에 대해 진일보한 해석을 가한 것이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전』은 다른 말로 십익(十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십익이 공자의 저작인가? 라는 의문은 천여 년 동안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 왔다. 『역전』에서 나타나는 ‘자왈(子曰)’이라고 인용된 부분은 분명히 『역전』을 편정한 사람¹⁴⁾에 의해 공자의 말로 인식된 것이다. 또 ‘자왈’이 없는 부분은 공자의 역학을 전승한 사람의 말이다. ‘자왈’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건괘·문언」에 여섯 부분이 있고, 「계사상」, 「계사하」에 23 부분이 있으나 「계사하」 제5장 “공자가 말하기를 ‘건곤은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였다”는 말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건은 양물이고, 곤은 음물이다”라는 구절에 음양의 관념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음양의 관념도 보이지 않고, 강유의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단지 ‘시위(時位)’의 관념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른바 시위의 관념은 중정(中正)과 부중정(不中正)의 관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중(中)’의 관념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중(中)의 관념은 『논어』에서도 분명히 발견된다.¹⁵⁾ 따라서 위에서 인용한 「계사하」 제5장의 “공자가 말하기를 ‘건곤은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공자의 말이므로 단지 그 밑의 “건은 양물이고……”라는 구절은 공자의 후학이 공자의 뜻을 부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다. 이것에 근거해 볼 때 『역전』에서 ‘자왈’이 인용된 부분이 모두 공자에게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다. 『역전』에서 인용된 ‘자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역에 대한 공자의 공헌은 그것을 실물의 상호관계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형성된 길흉관념에서 해방시켜 인간의 도덕적 주동성 위에 위치시키고¹⁶⁾ 아울러 행위의 이상적 표준으로

14) 『역전』 각편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며, 동시대 인물도 아니다. 각편 가운데에는 비슷한 성격의 언급들도 있지만 역시 대부분은 『예기』의 각 편과 마찬가지로 편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계초, 풍우란 앞의 책, 123쪽 참조.

15) “중용을 행하는 선비를 얻어서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뜻이 높아 과감히 행하는 자나 조심스레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중용의 덕은 지극하도다,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와 같은 내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의 ‘중’을 『주역』의 해석에 응용하였다는 데 있다.

춘추시대 말기가 되면서 『주역』은 본래 연결되어 있는 ‘-’ 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 라는 두 가지 상이한 부호를 만들었다. 우주 창조의 현상은 변화이지만 동질의 것을 통해서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육기(六氣) 중에서 부각되어 왔던 음양이기는 『주역』 속의 이 두 가지 부호와 결합될 수 있었다. 음양은 상반상성(相反相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체(氣體)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물을 구성하는 두 가지 원소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주의 창조과정과, 이 과정에서 만물이 형성하는 통일적 유기체를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진보하게 되었다. 음양관념을 통해서 『주역』을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주역』은 복서적 미신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철학적인 구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는 그 이름을 완전히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장기간의 노력에 의해 강유라는 사물의 속성에서 지금과 같은 음양의 속성으로 승화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었다. 원시적인 실물들도 새롭게 음양에 의거하여 분류되었으며, 분별적으로 음양관념 속에 편입되었다. 아울러 패의 성질도 새롭게 분류되었는데, 이것은 『주역』의 철저한 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대(漢代)의 역학은 이러한 개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였다.

『역전』 중의 「문언전」, 「계사전」, 「설패전」 등은 모두 편집에 의해 성립된 것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편의 자료들에도 시간적인 선후가 있다. 그러므로 음양이란 말의 성질이나 지위도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계사상」 제1장과 제2장은 강유의 관념을 통해서 역을 말하고 있다. 강유를 통해 많은 변화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유를 통해 밤낮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모두 비교적 초기의 자료이다. 「설패전」에서는 “이 때문에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고 하고, 땅의 도를 세워서 강(剛)과 유(柔)라고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 인(仁)과 의(義)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음양과 강유, 인의가 병렬되고 음양의 관념이 개입되기 시작하였

16) 복서(卜書)의 수(數)에 따라 길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완전히 피동적이다. 반면 행위의 도덕성에 따라 길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인간이 의연히 주동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으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의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계사상』에서는 “한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 한다. 그것을 이은 것이 선(善)이고, 그것을 이룬 것이 성(性)이다. 인자가 본 것을 인(仁)이라 하고…”라고 하였고, 『설괘전』에서는 “음양의 변화를 관찰하여 괘를 세우고, 강유로써 그 이치를 발휘하여 효(爻)를 만들었으며, 도덕과 조화시켜 의(義)에 맞게 하였다.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하여 명(命)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 속에는 이미 유기체적 조직이 완성되어 천(天)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단계의 음양은 만물을 낳는 우주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소이자, 이 두 가지 원소의 법칙적인 변화·활동으로부터 형성된 우주 창조의 대원칙, 대규범이며, 아울러 인생과 만물 속에 관주된 인생과 만물의 성명(姓名)이다. 음양관념은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 발전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관념은 장시간에 걸쳐 부지불식간에 빠르게 발전하였고, 『주역』에 그 관념이 주입된 이후에는 의식적인 구축과정을 통해서 완성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유림열전(儒林列傳)」에서는 “노나라의 상구(商瞿)가 공자에게서 역을 전수 받았다. 공자가 죽자 상구가 역을 전하였다. 여섯 세대가 지난 후 제나라 사람 전하(田何)에게 전하여졌으니 자(字)는 자장(子莊)이다”라고 하였다. 『한서』 「유림전」에는 비교적 자세한 서술이 있는데, 결국 역의 전승지는 노나라와 제나라였다. 그렇지만 증자·자사·맹자학파는 역의 전승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자와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순자시대에는 『역전』의 음양사상이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고, 순자가 『주역』을 인용한 것도 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¹⁷⁾ 그는 당시에 이미 『역전』의 음양변화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¹⁸⁾ 그러나 『역전』은 천일합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순자는 “오직 성인은 하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양자의 사상적 성격이 현저

17) 『순자』가 『주역』을 인용한 것 중의 하나는 「비상편(非相篇)」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대략편(大略篇)」에 있다. 그러나 「대략편」은 순자의 門人이 집록(輯錄)한 것이다.

18) “음양이 접하여 변화가 일어난다(『순자』 「예론편」)는 말과 ”이것은 천지의 변화이며, 음양의 조화이다(같은 책, 「天論篇」)라는 내용을 참조.

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역』이 순자에게 전해졌다는 왕중(王中)의 말¹⁹⁾은 순자의 학문을 높이기 위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순자는 「유효편(儒效篇)」에서 “『예(禮)』의 공경함과 문채를 숭상하는 것, 『악(樂)』의 중화(中和)사상, 『시(詩)』 『서(書)』의 박식, 『춘추』의 엄격함이라면 천지 사이의 인간의 일은 모두 끝난다” 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경(敬)의 특성을 서술한 것인데, 『주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순자가 『주역』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분명한 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역전』의 계통은 아마도 유가에서 다른 한 유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c. 음양오행의 융합: 『여씨춘추』에서 동중서까지

『전국책(戰國策)』에는 음양이라는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순자』 「비십이자(非十二子)」편에 “옛날 일들을 살펴서 새로운 학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오행이라고 한다”는 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조소(嘲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듯 하다. 『한비자』 「식사(飾邪)」편에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한차례 오행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일반적인 미신 풍습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정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추연의 학설이 일부 통치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을 제외하고는 당시 사상계의 흥미를 전혀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둘째, 뒤에서 서술하는 이유로 음양을 이야기하고 아울러 음양과 오행을 결합시키고 있는 문헌들은 거의 모두 『여씨춘추』 이후의 문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한발 더 나아가 오행, 천문, 율력, 풍습 및 정치적 이상을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조직한 것은 『여씨춘추』의 십이지기이다. 이것은 진시왕의 생부라고 알려지고 있는 여불위의 문객들이 만들어 낸 일대 걸작이다. 비록 합리성과 미신이 혼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높은 조직능력이 과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십이지기에는 결합될 수 있었던 과거의 모든 자료들이 거의 모두 정리,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여불위의 문객들은 음양오행에 관해 대단히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진시

19) 왕중, 『술학보유(述學補遺)』 「순자통론(荀子通論)」.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오덕종시의 운행을 추찰하여, 주나라는 화덕(火德)을 얻었고 진나라는 주나라의 뒤를 이었으므로 (진나라의 덕은 주나라의 덕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당시를 수덕(水德)이 시작되는 따라고 보았다. ……또 황하의 이름을 바꾸어 ‘덕수(德水)’ 라고 하였다. 진시황은 이렇게 하는 것이 수덕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국사를 집행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하며, 일은 모두 법에 의해서 결정하였다. ……그런 연후에 오덕의 수(水)에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사기』「진시황본기(秦始皇本記)」)고 한다.

그리하여 오행설은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통해 크게 선전되었으며, 당시의 유생들이 불가피하게 접수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에 따라 진대의 유생들은 대부분 방사와 뒤섞이게 된다. 그 중 뛰어난 몇몇의 유자들은 음양·오행이라는 새로운 두 가지 요소들을 흡수하여 유가의 전통적인 천인관계론을 재건하려고 하였다. 『여씨춘추』 「예운(禮運)」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덕이며, 음양의 변합(變合)이며, 귀신이 모인 것이며,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음양오행을 통해 인간과 천을 결합시킨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며, 유가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학설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학설의 출현은 음양오행설의 새로운 발전이며, 유가의 성격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양오행사상은 전한시대에 더욱 완전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응당 동중서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서』 「오행지」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음양을 추론하여 유자의 으뜸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춘추번로(春秋繁露)』를 통해 볼 때 동중서에 의해 이루어진 첫 번째 변화는 음양과 오행이 더욱 명료하고도 밀접하게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행상생(五行相生)」에서 “천지의 기는 합해지면 하나가 되고, 나누어지면 음양이 되고, 다시 분리되어 사시(四時)가 되고, 나열되어서는 오행이 된다”고 하였다. 「십이지지 十指」에서는 또 “수(水)는 겨울이 되고, 금(金)은 가을이 되고, 토(土)는 늦여름이 되고, 화(火)는 여름이 되며, 木은 봄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시를 오행의 운로의 결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따라서 그것의 정당한 구조는 앞서 언급한

“천지의 기는 …”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시를 그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선진시대의 전통적인 관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결국 위에서 인용한 「오행상생」이라는 말은 음양오행을 천지의 혼원한 기가 분화된 하나의 계열로서 파악하는 것이 된다. 「천변재인(天辯在人)」에서는 “금·목·수·화는 각각 주관하는 바를 받들어서 음양과 어울리며, 서로 힘을 합하여, 공을 함께 한다. ……그러므로 소양(小陽)은 목에 따라 일어나서 봄의 탄생을 돕고, 태양(太陽)은 화에 따라 일어나서 여름의 생장을 도우며……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기(一氣)가 오행으로 전개된 후 각각의 특성을 가지며, 아울러 그 특성에 근거하여 음양의 기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음양과 오행은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음양오행을 통해서 천과 인간의 관계를 구체화시켰으며, 그에 입각하여 천인의 감응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인부천수(人副天數)」에서는 “천지의 표징과 음양의 복사본은 항상 인간의 몸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몸은 하늘과 같다. 수(數)가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명(命)이 서로 연결된다. 하늘이 일년을 운영하는 수가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인간의)작은 뼈마디는 366개이니 일년 동안의 날수를 본 뜬 것이다. 큰 뼈마디는 12개 이니 달수를 본 뜬 것이다. 몸 안에는 오장이 있으니 오행을 본뜬 것이다. ……행하는 데에는 윤리가 있으니 천지를 본 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하나의 소유주이다. 「천변재인」에서는 “그러므로 봄·여름의 양과 가을·겨울의 음은 단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천과 마찬가지로 음양·사시의 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음양의(陰陽義)」에서는 “하늘에도 희노의 기가 있고, 애락의 마음이 있으니 인간과 서로 부합한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합해지니 하늘과 인간은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천인 사이에는 일종의 자연적인 감통의 작용이 발생한다. 「동류상동(同類相同)」에서는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다. 천지의 음기가 일어나면 사람의 음기도 그에 응하여 일어난다. 사람의 음기가 일어나면 천지의 음기도 그에 감응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에 미루어 보면 천과 인간

의 감응이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천인의 관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에 따라 인륜과, 덕도 천과 동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역전』에서는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는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중서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그의 책속에서 「양존음비(陽尊陰卑)」라는 편명을 만들었다. 이것은 우주론적 입장에서 통용될 수 없는 논의이기는 하나, 인간을 음양의 관계로 투영하고 음양을 인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간화된 음양을 인륜관계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인륜이 이와 같기 때문에 도덕도 이와 같아진다는 내용일 것이다.

「기의(基義)」에서는

“음은 양의 짝이고, 지어미는 지아비의 짝이고, 자식은 부모의 짝이고, 신하는 군주의 짝이다. ……양은 음에 포괄되고, 음도 양에 포괄된다. 지아비는 지어미에 포괄되고, 지어미도 지아비에 포괄된다. ……군신·부자·부부의 의는 모두 음양의 도에서 취한 것이다. 군주가 양이라면 신하는 음이고, 부모가 양이라면 자식은 음이다. 지아비가 양이라면 지어미는 음이다. ……”

라고 하였다. 동중서는 이로부터 양존음비를 말하면서, 삼강(三綱)의 도를 세우고서는 삼강의 도를 “하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유가가 전제정치에 머리를 숙인 것이며, 윤리사상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중서의 양존음비사상은 명분과 지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덕을 귀하게 여기고, 형벌을 천하게 여기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간의 도덕에서도 음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심찰명호(深察名號)」에서는

“한 사람의 진정이 드러나는 데에는 탐욕도 있고, 인(仁)도 있다. 사람의 몸에는 인(仁)과 탐욕의 기(氣)가 모두 있다. 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음양의 두 가지 작용이 있으며, 사람의 몸에도 탐욕과 인이라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하늘의 음(陰)²⁰⁾의 작용에 대해서는 금제를 가할

20) 원문은 ‘음양’이라고 되어 있으나, 유사배(劉師培)에 따르면 ‘양’자는 빠질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필요가 있으며, 몸의 정욕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질은 모두 천(天)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뜻과 의도는 천지를 따르고, 완급은 음양을 모방하니……하늘과 사람의 도를 함께 드는 것을 일러 중(中)을 잡았다고 한다(「여천지위(如天之爲)」)”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동중서가 「순천지도(順天之道)」와 「여천지위」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중서가 「오행상생」에서 오행을 인·의·예·지·신의 오상(五常)에 배합한 것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이나 본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금·목·수·화·토에서 인·의·예·지·신이 나온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행에서 오상이 나타난다는 말은 후대에 발전된 내용이며, 『백호통의(白虎通義)』 「오행(五行)」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하게 된다.

네 번째 변화는 동중서의 사상적 중심은 정치에 있으며, 그는 결국 음양설을 통해 전한 왕조가 계승한 형벌 위주의 법가 정치를 덕을 숭상하는 유가사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역전』에서는 이미 양존음비사상의 단초가 엿보인다. 거기에서는 양의 따뜻한 성질에 입각하여 그것을 봄과 여름에 배정하였고, 음의 차가운 성질에 입각하여 그것을 가을과 겨울에 배정하였다.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는 자연 봄과 여름을 가을과 겨울보다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양기가 음기보다 존중받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상은 동중서에 의해 대대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음은 형벌의 기이고, 양은 덕의 기이다. 음은 가을에서 시작되고, 양은 봄에서 시작된다. 여름은 봄에 태어난 것을 기르고, 겨울은 가을에 생장을 멈춘 것들을 죽인다. 대인(大人)의 뜻은 이 때문에 사랑을 먼저 하고 엄한 것을 나중에 하며, 생을 즐겨워하고 죽음을 슬퍼하니 이것이 하늘의 상도이다. 군주들은 하늘의 덕을 크게 여기고, 형벌을 작게 여기는 것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천수(天數)는 양을 존중하고, 음을 존중하지 않으며, 덕에 힘쓰고 형벌에 힘쓰지 아니한다. 형벌에 의지하여 성세를 이룰 수 없음은 음에 의지하여 한해의 운행을 마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정치를 하면서도, 형벌에 의지하는 것을 하늘을 거스린다고 하니 왕도가 아니다 (「양존음비」)

『춘추번로』와 「천인삼책(天人三策)」에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강조하여 반복적이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동중서 사상의 신비적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실한 뜻일 것이다.

다섯 번째 변화는 동중서는 천하를 통일한 황제를 겨냥하여 『춘추』의 재이설(災異說)을 확대시켰으며, 동시에 「홍범」에 나타나는 실용적인 사물로서의 오행의 생성과 변화를 주관하는 오기(五氣)로 변화시키고, 진일보하여 오기로 변화된 오행을 「홍범」의 오사·용모·말·보는 것·듣는 것·생각·와 밀접하게 연관시켜²¹⁾ 재이(災異)를 통해 표현되는 경험을 결정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황제의 일거일동을 천에 의해 간섭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동중서의 이러한 번잡한 음양오행설은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음양오행의 기를 통해 천인감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실상 일련의 물질적인 법칙에 신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가 말한 천은 때때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재로는 하나의 氣일 뿐이지 인격신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진정으로 종교적인 신의 의지를 지닐 수 없는 것이며, 진시왕은 중국천하를 통일하고 그의 정권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종교적 신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방사와 음양오행설이 혼잡하게 일어나 통치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종교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기』 「봉선서」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방사는 신이 아니고 황제 역시 신(神)이 될 수는 없다. 『예기』 「제의」에서는 비록 기를 통해서 신을 해석하기는 하였지만²²⁾ 그것은 실상 전통종교에서 신(神)을 기(氣)에 응해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통치자의 무한한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사불상(四不象: 머리는 사슴, 다리는 소, 꼬리는 당나귀, 목은 낙타를 닮은 동물)같은 종교였을 뿐이다. 동중서는 이러한 시대적 추이 아래에서 유가의 정치사상을 이

21) 「홍범」의 오행과 오사를 배합시킨 것은 아마도 동중서에게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후 금문상서자들이 그것을 『상서대전』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22) “재아(宰我)가 ‘저는 귀신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공자가 氣라는 것은 신(神)이 성한 것이고, 백(魄)이라는 것은 귀(鬼)가 성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예기』 「祭義」)

사불상 같은 종교의 껍데기 속에 집어넣고, 그것으로 인해 천하를 통일한 황제의 의지나 행위 모두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조심스러움 속에서 유가의 정치적 이상을 접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유가의 정신이 전제정치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교묘한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전환이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종교의 기초는 원래 노새도 말도 아닌 것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목적도 바뀌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노새도 말도 아닌 구조는 오히려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것이 대체로 동중서와 그 이후의 유향 문도들이 음양오행을 선양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며,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한서(漢書)』 「오행(五行)」이었다.

음양오행의 변화·전개는 여기에 이르러 대체로 정체(停滯)된다. 그 이유는 이미 사사의 여러 방면에 걸쳐 음양오행은 다각적으로 침투하였으며, 이후의 발전은 그것이 지나치게 번쇄하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인 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건강부회한 설법들을 정리하여 좀 더 조리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한 광무제가 참위설을 제창하게 되면서 통치자들은 전한시대의 유생들이 황제에게 걸어 놓은 정신적인 족쇄를 통치자를 옹호하려는 욕망과 의지에 맞게 전환시켰다. 그리하여 이후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은 더욱 무력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음양오행을 순전히 우주론적인 설명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과학적'인 설명이 될 것이며, 인류의 지성사에서 볼 때 진보적인 의의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적인 구조로 파악하거나 도덕의 근거로 삼는 태도는 선진시대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입각하여 도덕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 하게 된 선진시대의 사상적 내용을 사불상 같은 물질적인 종교에서 근거를 찾는 것으로 퇴보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로 인해 선진시대 전적에 많은 왜곡된 해석이 나타났다. 이것은 학술사적으로 볼 때 전한시대와 선진시대에 분명히 대비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중국 학술발전상의 일대 변화였으며, 이후 이 천년 동안 학술계의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중국 고대 문헌의 정리와 사상 발전의 곡절에 대해 좀 더 많은 명료한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다시 이 천년 동안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추연의 새로운 학설이 당시의 사상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추연 자신도 진정으로 자신의 학설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선진시대는 명칭이나 내용적으로 ‘음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음양가’라는 명칭은 사마담의 「논육가요지(論六家要旨)」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음양술을 보건대 길흉의 징조를 중시하지만 기획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애되어 두려워 하는 바가 많게 한다. 그러나 사시의 큰 순서를 정리한 것은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그가 말한 음양가는 『여씨춘추』 십이기를 발전시킨 계통 그리고 거기에서 십이기에 수록하지 않은 미신들을 부가하여 말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사마담은 추연의 오덕종시설에 대해 조금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마담·사마천 부자가 오덕종시설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마담이 지적한 음양가는 반드시 추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최소한 추연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서』 「예문지」 제자락의 음양가에 대한 서술은 사마담의 설법을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저록된 음양가의 전적은 추연의 도 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서술과 저록 사이에는 일종의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예문지」 병서략(兵書略)의 ‘음양’이라는 한 조목 그리고 술수략 중의 ‘천문’, ‘역보’, ‘오행’ 등의 조목도 마땅히 음양가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음양오행설은 전한시대에 대단히 발전하였기 때문에 한대의 역사기록들은 여러 종류로 그 조목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³⁾

d. 음양관념과 관련한 다양한 사상체계

앞서 살펴본 음양관념은 다양한 체계속에 나타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양각생음양(陰陽各生陰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역학(易學) 중에서 음양변역(陰陽變易)에 관한 관점으로 주희(朱熹)는 『주자어류(朱子語

23) 양계초, 풍우란 앞의 책, 153쪽~156쪽 참조.

類』 권 65에서, “한 사물에 또 각자 음양이 있으니 사람의 남녀도 음양이다. 사람의 몸에도 또 각각 혈기가 있는데 혈(血)은 음(陰)이고 기(氣)는 양이다. 낮과 밤사이에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다. 낮이 양이면서 오후는 또 음에 속하고, 밤이 음이면서 자(子)부터는 양에 속한다. 곧 이것이 음양이 각각 음양의 상(象)을 생(生)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물에는 모두 음양의 양 방면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으며 양 가운데 음이 있어 음양이 교착대치(交錯對峙)하여 겹겹이 서로 생(生)하여 다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음양관견(陰陽管見)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 명(明)나라 때 학자인 하당(何塘)의 저서. 1권. 그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전후로 35년 동안 학문하고 사변하여 바야흐로 책을 이루었다고 한다. 음양(陰陽)이 세계의 본원(本源)이라 하여, “조화(造化)의 도(道)는 일음일양(一陰一陽)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양(陽)을 유지무형(有知無形)한 것으로, 음(陰)을 유형무지(有形無知)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가지가 서로 합하면 물(物)이 생(生)하고, 서로 떨어지면 물(物)이 사(死)한다”라고 말하였다. 그 심물이원론(心物二元論) 사상을 반영하여 동시대의 왕정상(王廷相)²⁴⁾의 반박과 비난을 받았다. 백릉학산본(百陵學山本)과 학해류편본(學海類編本)이 있다. 다음은 음양도(陰陽道)와 관련한 내용으로 음양도는 중국의 음양오행설에 따른 속신(俗信)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한국, 일본에 전래된 이래, 그 주술적(呪術的)인 측면이 발달되었다. 원래 음양오행설은 고대인(古代人)의 일종의 철학사상이고 일상경험의 사실(事實)이다. 천지(天地). 일월(日月). 주야(晝夜). 남녀(男女) 등 2개의 상반(相反)하는 개념의 상호의존(相互依存) 또는 상극(相克)의

24) 왕정상(王廷相) 1474~1544 중국 명(明)나라 때의 사상가, 자는 자형(子衡), 호는 평애(平厓)·준천(浚川)이다. 허난성(河南省) 란카오현(蘭考縣)출신으로, 왕양명, 나홍순등과 같이 환관 유근 때문에 유배되었으나 뒤에 차차 지위가 올라가 병부상서가 되었다. 저서로는 『王氏家藏集』, 『愼言』, 『雅述』 등이 있고 『횡거이기변(橫渠理氣辯)』을 써서 송(宋)나라 장횡거의 기철학을 높이 평가하였고, 스스로도 이기론을 깊이 사색하여 하당(何塘)과 논쟁하였다. 주자학이 이철학인데 비해 기를 더 중시하여 독자적인 이기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기를 지나치게 주장하여 그것을 초극하여 보편적인 입장을 수립하는데 미흡한 면을 보였다. 오히려 기의 세계에 파묻혀 사회정책론, 경제론에 있어서 운명론에 빠져 버렸으므로 부패하는 현실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실천주체를 확립할 사상체계를 수립할 수 없었다. 그는 개인을 세우기보다는 예제(禮制)를 부흥시켜 사회규범을 강화하여 밖에서부터 인간 및 사회의 부패를 교정하려고 하였다.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20권 11491쪽.

이(理)에서 이루어서, 일체의 길흉(吉凶) 나아가 우주 인생의 운세(運勢)를 예측하고 또 그 결과를 이 세상에 실현하려는 행동적 사유(思惟)이다. 또 오행(五行)이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가지를 가리키고 이 5개가 일체의 사상(事象)을 구성하는 원질(原質)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음양오행설은 천문(天文).역수(曆數)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방위(方位). 일시(日時). 일신(一身). 여러 가지 일에 기피하는 것이 있고 크게는 관혼상제(冠婚喪祭)로부터 작게는 머리감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理)에 따르려고 하였다.

또한 음양배치(陰陽配置)는 성명학(姓名學)의 용어로 성명의 조직을 나타낸다. 음양의 조화로써 만물이 화생하고 새로운 생명력이 동하게 되는데, 음양이 부조화하면 힘의 균형을 잃게 되어 새로운 생의 연장을 저해하므로 마찰 파괴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성명의 음양조화, 부조화의 여부는 곧 육체의 흥망성쇠 내지는 생명의 보존과 파괴 등 신명운로(神明運路)의 급변(急變)에 영향이 컸다.

음양변통내성(陰陽變通內成)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 명.청(明清) 때의 학자인 왕부지(王夫之)²⁵⁾의 역학(易學) 명제로, 『주역외전(周易外傳)』 권5에 나오는 말이다. 그는 음(陰)과 양(陽)이 변통(變通)하여 안으로 이룸. 『주역』 계사전에 변통을 설명하기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가고 와서 다하지 않는 것을 통(通)이라 한다”, “변통이란 때에 쫓는 것이다”, “변통하는 것은 사시(四時)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음양불측지위신(陰陽不測之謂神)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음양(陰陽)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변화 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러 신(神)이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주역』 계사전 상(上)에 나오는 말로 이것은 ① 음양의 모순 변화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고로 신(神)이라 한다.

25) 왕부지(王夫之) 1619~1692 중국 명(明)나라말기에서 청(淸)나라 초기의 사상가로 자는 이농(而農), 호는 강재(薑齋)이다. 그는 북송때의 학자 장횡거의 영향을 크게 받아 40여년에 걸친 산중에서의 엄격한 학문적 실천에 의하여 중화의 도를 단절시키지 않는 능동적인 생(生)과 동(動)의 철학을 확립하고 이민족의 지배와 이단(노장사상과 불교)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민족주의적인 당파성을 띤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저서로는 『주역외전(周易外傳)』, 『도기론(道器論)』이 있으며 애국적인 『황서(黃書)』는 후에 청나라 말기 애국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위의 책, 20권 11482쪽.

② 손 사이에 시초(蓍草)를 낀 수(數)의 변화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신(神)이라 한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또한 음양쌍수(陰陽雙修)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가(道家)의 수양술(修養術)에 음(陰)과 양(陽)을 함께 닦음(陰陽雙修)을 중시하는 이들이 있는데, 역(易)의 “일음일양지위도”라는 이치에 인연하고 기초한 것이다. 『참동계』(參同契)에, “사물에 음양이 없으면 하늘을 어기고 근원을 등져서, 암탉이 혼자서 알을 낳아 그 병아리가 완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삼봉전집』(三丰全集)에서는 “조밀하고도 세밀하게 호흡을 고르게 하여, 한 번은 음(陰)으로 또 한 번은 양(陽)으로 하여 솥(鼎)안에서 끓인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음양설(陰陽說)은 음(陰)과 양(陽)의 두 원리에 의하여 인간과 자연을 해석하는 설(說)로, 음양설이 형성된 것은 공자. 맹자 이후의 일인데, 『』에서는 인간의 기분을 명암(明暗)에 붙여지고, 다시 음양이 기(氣)와 합체(合體)하여 기(氣)의 큰 것으로 되어 특히 그 외잡편(外雜篇)에 음양의 용례(用例)가 많이 보이고 있다. 『순자』에서는 사시(四時)의 옮겨감이 음양으로 말해졌고, 『여씨춘추』에서는 하지(夏至)는 양(陽)의 극(極)이고 동지(冬至)는 음의 극(極)이라고 하며, 『좌전』에서는 일식(日食)은 양(陽)이 음(陰)을 이기지 못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역』(易)의 해석에도 음양설이 채용되어 -을 양, --을 음으로 하고 “양기(陽氣)가 잠장(潛藏)한다,” “음(陰)이 비로소 굳어진다”, “양이 위에 있다” 등으로 말해지고, 천지.남녀.부부.부자.군신.상하.진퇴 등을 각각 음과 양으로 해당시켰다. 그리하여 음양(陰陽)의 이(=)는 일(-)로 통일되어, 태극(太極) → 양의(兩儀:음양) → 사상(四象) → 팔괘(八卦)의 생성론(生成論)이 되고, 다시 『여씨춘추』 『회남자』의 우주론으로 전개되었다. 또 진.한(秦.漢)때에 음양설은 오행설(五行說)과 결합하여 전한(前漢)의 동중서(董仲舒)는 음양오행설을 사용하여 천인(天人)의 감응(感應)을 말하고, 음양에 관하여 음을 낮추고 양을 높일 것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한(漢)의 군주권(君主權)의 강대함에 따른 것이다. 음양설은 의서(醫書). 병서(兵書)에도 사용되었다. 주립계는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화생(萬物化生)의 유출론(流出論)을 도시(圖示)하여 음양의 시간적 유행(流行)과 공간적 대대(對待)를 분명히 하였고, 장횡거는 태허(太虛)에 있어서 음양이기(陰陽二氣)의 동정(動

靜).부침(浮沈).승강(昇降)을 서술하고 천체의 운행, 일월식(日月食)의 발생, 기상(氣象)의 변화를 음양으로 설명했다. 주자(朱子)는 장횡거의 설을 다시 합리화하여 천지의 생성이나 자연현상을 형이하(形而下)의 기음양(氣陰陽)으로 설하고 있으며, 천문역수(天文曆數)의 설은 특히 상세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조리(條理)와 인륜(人倫)의 이법(理法)이 태극의 이(理)와 통괄하여, 전존재(全存在)는 조화와 질서를 얻는다고 했다. 이(理)를 형이상(形而上), 음양을 형이하(形而下)라고 함은 정이천(程伊川)의 설에 따른다. 명(明)의 왕정상(王廷相), 청(淸)의 대동원(戴東原)은 정주(程朱)²⁶⁾의 이체(理體)를 피하고 다시 일원기론(一元氣論)을 부활시켰다.

또한 음양시기 오행시질(陰陽是氣 五行是質)이란 내용이 소개 되는데, 그것은 중국 남송(南宋)의 주희(朱熹)의 역학(易學) 명제(命題)로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에 나오는 말로, 음양은 기(氣)이고 오행은 질(質:氣의 응결상태)이다. 는 말인데, 음양의 기(氣)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5종 원료(原料) 이것이 만물을 형성하는 7종의 물질요소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주돈이(周敦頤)²⁷⁾의 ‘이오지정 묘합이응’(二五之精 妙合而凝)설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음양시도(陰陽是道)라는 내용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중국 북송(北宋)의 학자인 정이(程頤)의 역철학 명제로, 『유서(遺書)』권 15에 “음양을 떠나서 다시 도(道)가 없다. 그래서 음양이 도(道)이다. 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로 ”형체가 있는 음양의 기(氣)는 형체가 없는 도(道)의 표현양식이다. 정이(程頤)는 도(道)와 음양은 합일(合一)하나 양자는 형상(形上)과 형하(形下), 무형(無形)과 유형(有形)의 구별이 있고, 본(本)과 말(末)의 구별이 있다. 음양이기(陰陽二氣)는 유형의 물(物)이고 도(道)는 음양의 형체 없는 이(理)이다. 음양의 이(理) 이것은 음양의 기(氣)를 있게 하는 근거이다. 음양은

26)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정명도,정이천, 주희를 말함.

27) 주돈이 1017~1073. 중국 북송(北宋)의 사상가. 자는 무숙(茂叔). 도주영도(道州營道 ; 湖南省道縣) 출신. 염계(濂溪)연변에서 태어났고 말년에 루산기슭에 염계서당을 세웠기 때문에 염계선생이라고 한다. 그의 학설은 역(易)과 중용을 근거로 道家와 道教사상을 도입했으며, 무극이태극설을 비롯하여 주정설(主靜說)·성설(誠說)·성인가학설(聖人可學說)등 송학(宋學)의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위의 책, 25권 14518쪽.

기(氣)의 영역에 속하고 이것은 형(形)이 있다. 그러나 이 음양(陰陽)이 도(道)가 아닐지라도 도(道)는 음양(陰陽)을 벗어나지 않는다. 음양의 이(理) 또한 음양의 기(氣)에 벗어날 수 없고 도체(道體)는 기용(器用)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음양시도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음양을 음양지정(陰陽之精)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중국 위(魏)나라 때 학자인 유소(劉劭)의 역학(易學) 용어로 『인물지(人物志)』 『구징(九徵)』에, “총명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정(精)이다. 음양이 청화(淸和)한 즉 속이 슬기롭고 밖이 밝다”. 라고 한데서 나온말. 사람의 총명한 것은 음양을 받은 것에서 양(陽)이 정령(精靈)한 결과 때문이라 한다. 이 말의 연원은 『주역』 계사전상(繫辭傳上)에 “정기(精氣)가 물(物)이 된다” 라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널리 보편화 되어 있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 고래(古來)의 사상으로 음양(陰陽)의 이원(二元)에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5원소를 짝하여 이것을 자연(自然) 인사(人事)의 모든 것에 적용하여 생각하고 길흉(吉凶) 물기(物忌) 상성(相性) 등을 해석한다. 고대 중국의 농경생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음양(陰陽)의 말은 ‘산의 햇빛 쬐이는 것을 뜻하지만 그것이 주야(晝夜) 한서(寒暑) 남녀(男女)의 뜻에까지 넓혀져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음양도(陰陽道)는 서로 반(反)하는 성질은 가진 두 개의 원리(음.양)에 의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오행설(五行說)이란 중국 전국시대 의 추연이 창창(創唱)한 학설이고 5는 금목수화토의 5가지 물질, 행(行)은 운행(運行)을 의미하고, 이 5원소의 순환에 의하여 우주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우세하게 되면 사회에도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추연은 토(土)는 목(木)에 이기지 못하고, 목(木)은 금(金)에, 금(金)은 화(火)에, 수(水)는 토(土)에 이기지 못한다는 토목금화수의 순서로 순환하는 오행상승설(五行相勝說)을 설하여 역대왕조(歷代王朝)의 교대(交代)를 해석했다. 전한(前漢)의 초기까지는 이 오행상승설이 유행하였으나, 전한 말기에는 목(木)에서 화(火)가 생하고, 화(火)에서 토(土)가, 토(土)에서 금이, 금(金)에서 수(水)가 수(水)에서 목(木)이 생 한다는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배열하는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이 우세하게 되었

다. 이 원리가 병술(兵術)의 금기(禁忌), 귀신(鬼神)의 설명에서 다시 철학적 해석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상은 일반 민중의 신앙에까지 나아가 음양도(陰陽道)로 발전하였다.

다음은 음양을 팔괘와 관련하여 나타낸 음양팔괘법(陰陽八卦法)이 있는데, 그것은 역(易)의 근본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역(易)의 근원적 원리는 건(乾 ☰) 태(兌 ☱) 이(離 ☲) 진(震 ☳) 손(巽 ☴) 감(坎 ☵) 간(艮 ☶) 곤(坤 ☷)의 팔괘(八卦)이며 팔괘의 근원은 음(陰 --) 양(陽 -)의 이원(二元)이고 음양의 근원은 태극(太極)이다. 『주역』 계사전에; “역(易)에 태극이 있어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 팔괘는 길흉을 정하고 길흉은 대업(大業)을 낳는다.”고하여 역의 생성발전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대순진리의 종지에 나타나는 용어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이 있는데, 그것은 덕(德)은 속성(屬性)의 성질(性質)을 가리킨다. 음양의 속성이 서로 통하고 서로 합한다는 뜻이다. 『주역』 계사전하(繫辭傳下)에 “공자가 말하기를 건곤(乾坤)은 역(易)의 문(門)인가. 건(乾)은 양물(陽物)이요, 곤(坤)은 음(陰物)이다. 음과 양이 덕의 기운을 합하여 강(剛)과 유(柔)의 체(體)는 따라서 생할 데가 없으니, 음양이 서로 합함으로써, 이에 만물을 생(生)하고 혹은 강(剛)이거나 혹은 유(柔)이거나 하여 각각 그 체(體)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음양합덕 강유유체(陰陽合德 剛柔有體)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음과 양이 덕의 기운을 합하여 강과 유의 체가 있음. 『주역(周易)』 계사전하(繫辭傳下) 6장에 나오는 말. 음과 양의 덕성(德性:성질)이 배합(配合)하여 양강(陽剛) 음유(陰柔)가 모두 현재의 구체적인 사물에 표현된다는 말이다.²⁸⁾

이상과 같이 음양론은 다양한 체계로 발전하여 동양전통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볼 수 있었다.

4. 동양전통의 음양이론

이 장에서는 음양이론의 이해와 관련하여 그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28) [道家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1997) 참조.

고 파악되는 몇 가지의 사상체계에서 논의되었던, 음양관념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道家의 陰陽思想

선진도가(先秦道家)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로 대표되며, 유가(儒家)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중요한 학파이다. 도가는 음양을 기(氣)와 관련하여 논하면서 기에 ‘충기(冲氣)·’음양의 기(陰陽之氣)라는 함의(含意)를 주었고, ‘道-氣물질(사람)’이라는 우주발생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질(사람)-기-도’를 사람이 도를 체득하여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유가의 氣思想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는 흔히 도가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노자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을 짊어지고 양을 껴안고 있으며, 충기로써 조화를 이룬다.”²⁹⁾고 했다. 참고로 한 대(漢代)의 사람들은 ‘하나’를 氣로 해석했다. 앞서 살핀 『노자』를 보면 우주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도가 변화·생성하여 혼돈의 기가 나오고, 기가 변화하여 음양의 기가 나오고, 음양의 기가 변화하여 하늘·땅·사람이 나오고, 나아가 만물이 변화·생성된다. 만물은 모두 안에 음양 두 기를 담고 있으며, 음양 두 기의 교감과 운동이 만물을 어울려 자라게 한다. 노자의 기는, ‘하나’이며, 우주는 나뉘지 않은 혼돈의 기이다. ‘충기’는 멈추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음양의 기이다. 그러므로 기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는데, 첫째는 물질성이다. 기는 형체 없는 혼돈이며, 도에서 나온다. 그러나 기는 이미 일종의 물질이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없음’은 무(無)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無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운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의 특징은 ‘충’, 곧 머물지 않고 운동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는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은 상반상성(相反相成)하고, 서로 부딪히며 작용하는데, 만물은 바로 ‘충기’가 화합하고 변화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음양의 기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만들고 생겨나게

29) 『老子』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冲氣爲和”

하며, 또 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자철학의 음양사상은 도에서 변화하여 만물을 생성해 내는 중간고리이다. 비록 그것은 구체적인 형체는 없지만 음양의 기는 이미 구체적인 물질이며, 노자철학의 범주와 논리구조 가운데 음양은 도 범주에 종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자의 철학을 이어받은 장자(莊子 B. C. 355?~275)는 음양은 기의 큰 것으로 보고 음양의 기를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일종의 정미한 원시물질(原始物質)로 파악하고, 그것이 하늘·땅·사람·사물의 형체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천지만물과 사람의 공통적 물질기초인 ‘기’는 단순한 ‘하나(一)’가 아니고 음양의 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음양 두기로 나누어 진다. “음양은 기의 큰 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이렇듯 음양은 기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기가 모이고 흩어져서 만물과 사람을 생겨나게도 하고, 없어지게도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음양 두 기가 교감하고 변화하는 작용 때문이다. 는 북해약(北海若)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다. …중략(中略)…이처럼 강과 (황)하의 흐름을 훨씬 뛰어 넘어서 수량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으로 스스로 많다고 하지 않는 것은 천지에서 형체를 받고 음양에서 기를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³¹⁾

북해약은 우언(寓言)의 인물이긴 하지만 큰 바다는 곧 객관적인 자연존재이다. 는 큰 바다가 ‘음양에서 기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만물이 ‘음양에서 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물체와 사람 몸 안에는 모두 자연에서 받은 ‘음양’의 기가 들어 있다.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루면 몸 안의 원기가 고르고 평화로우며, 사람과 만물이 제대로 자라고 발전하지만, 반대로 음양의 기가 평형을 잃으면 사람과 만물에 모두 변화와 이상이 생겨서 죽음에 이른다. 예를 들어 자여(子輿)는 “허리가 굽고 등이 불 쭉 튀어 나오고 오장은 위로 올라가고, 턱이 배꼽에 가려지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으며, 목덜미가 하늘을 가렸는데”, 이것은 “음양의 기에 부조화가 있기”³²⁾때문이다. 반드시 천지·음양의 기를 조화시켜야

30 『莊子』, 「則陽」, “陰陽者 氣之大者也”

31) 『莊子·知北遊』, 「秋水」, “天下之水 莫大於海 萬川歸之…中略…此其過江河之流不可爲量數 而吾未嘗以此自多者 自以此形於天地 而受氣於陰陽…”

32) 같은 책, 「大宗師」, “曲僂發背 上有五管 頤隱於齊 高於頂 肩句贅指天 陰陽之氣

비로소 못 생명을 기를 수 있다. “하늘의 기가 조화되지 못하고 땅의 기가 엉키고 육기가 고르지 못하고, 네 계절이 질서를 잃는다. 지금 나는 육기의 정수(精)를 합쳐 못 생명을 기르려 한다”³³⁾고 하였는데, ‘하늘의 기’ ‘땅의 기’ 또한 음양의 기이다. ‘육기’는 음·양·풍·우·회·명의 기이다. 음양의 기 또는 육기가 고르지 못하면, 만물에서 네 계절의 변화까지 모두 문란해진다. 음양이 조화하고 어울리며, 육기가 순조로워야만, 네 계절이 비로소 제대로 변하고 만물이 비로소 제대로 자란다. 만물과 사람의 생장·변화는 음양 두 기의 변화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음이 없다.

나. 역전(易傳)의 陰陽思想

오덕종시설과 「홍범」, 오행설에서는 모두 음양관념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인식할 있는 비교적 체계적인 음양사상은 전국시대부터 진한시대의 음양사상인 『영전』에서 볼 수 있다.

『주역』은 오랫동안 “음양을 말하는” 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식은 전국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주역』의 괘사나 효사 중에는 ‘음양’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주역』에서는 앞서 전술한 中孚卦 九二爻의 효사에 하나의 ‘음’자가 나타날 뿐 더 이상의 발견은 없는데, 더구나 여기에 나타난 ‘음’자는 ‘음(蔭)’자 대신 쓰여진 것이고, ‘음양’에의 ‘음’의 함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주역』에는 본래 음양관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장자』 「천하」는 내륙문화의 경전, 즉 유가의 육예(六藝)에 대해서 “『시(詩)』는 뜻을 말하고, 『서(書)』는 일을 말하고, 『예(禮)』는 행실을 말하고, 『악(樂)』은 조화를 말하고, 『역(易)』은 음양을 말하고, 『춘추(春秋)』는 명분을 말하였다”고 평하였다. 이는 이미 전국시대에 음양관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例)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진(晉) 태강(太康) 2년(281년)에는 급현(汲縣)에 있는 위(魏) 양왕(襄王: B. C. 318~B. C. 296)의 무덤에서 죽서(竹書)가 수십 수레분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역요음양괘(易繇陰陽卦)』 2편은 『주역』과 대략 같으나 점사는 달랐다(『晉書』 「束晰傳」)”고 한다. 또한 두예(杜預)도 “급군 급현에는 그 경계 내에 있는 옛날 무덤을 발굴한 자가 있

有滲

33) 같은 책, 「在有」 “天氣不和 地氣鬱結 六氣不調 四時不節 今我願合六氣之精 以育群生”

었는데, 고서를 많이 얻었다. ……『주역』 상하편은 지금의 것과 완전히 같고, 또 따로이 『음양설』이 있었다.(『左傳集解』「後序」)고 하였다. 음양관념을 통해 『주역』을 해설했던 전국시대의 인물들이 당시에 이미 책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은 음양을 말한다”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당시에 음양관념은 대단히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 “『역』은 음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음양으로 『역』을 말한 것’ 이라고 해야 옳다고 본다. 진대(晉代)에 출토된 『역요음양괘』나 『음양설』 등은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주역』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문언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역전』의 이른바 십익(十翼)³⁴인데, 표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음양관념으로 『주역』을 해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역전』은 『주역』을 음양체계 속에 편입시켰으며, 『주역』은 오히려 음양사상의 주해서(註解書), 즉 음양을 설명한 책이 되었다. 그 때문에 정말로 “『역』은 음양을 말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단전」, 「상전」, 「문언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단전」은 『역전』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64괘의 괘명과 괘의(卦義), 괘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효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단사」 중에서 음양을 명언하고 있는 곳은 다음의 두 곳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태(泰): 안은 양이고 밖은 음이다.

비(否):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안’이라는 것은 내괘(內卦), 즉 하괘(下卦)를 가리키고, ‘밖’이라는 것은 외괘(外卦), 즉 상괘(上卦)를 가리킨다. 태괘의 내괘는 건이다. 그러므로 “안은 양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의 외괘는 곤이다. 그러므로 “밖은 음이다”라고 하였다. 또 비괘의 내괘는 곤이다. 그러므로 안은 음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의

34) 십익은 「단전(象傳)」 상·하, 「문언전(文言傳)」, 「계사전(繫辭傳)」 상·하,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이다. 漢代에는 이 열편을 십익이라고 불렀으며, 그 지위를 높여서 공자의 저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십익은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이미 정론(定論)으로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십익이 전국시대의 작품이며, 여러 사람이 누대에 걸쳐 저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외괘는 건이다. 그러므로 "밖은 양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단전」에서는 이미 건·곤을 음괘와 양괘로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전」은 64괘의 괘명과 괘의 384효의 효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괘사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혹자는 「상전」이 「단전」에 비해 후대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다.³⁵⁾

「상전」에서 음양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괘와 곤괘의 초효(初爻)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건괘 초구: 상(象)에 이르기를 '물 속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곤괘 초육: 상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언다'는 것은 음이 비로소 엉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건괘의 초구는 괘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양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효가 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곤괘의 초육도 괘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음이 비로소 엉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효가 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언전」은 건괘와 곤괘의 괘사와 효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건괘」 초구를 해석하는 말: '물 속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양기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곤괘」 상육을 해석하는 말: 음이 양과 비슷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 양이 없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단전」, 「상전」, 「문언전」 중에서 음양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대단히 적으며, 모두 합해야 여섯 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섯 부분을 통해서 『주역』 전체가 음양체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먼저 『주역』의 기본 부호는 '-' '- '이다. 8괘와 64괘는 모두 이 두 가지 부호로 구경되어 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건괘 초구와 곤괘 초육이 「상전」에서는 '-'를 양의 표상으로, '- '을 음의 표상으로 풀이하여 '-'과

35) 고흥(高亨), 『주역대전금주(周易大傳今注)』 참조.

‘--’이 각각 양효와 음효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음양관념을 근본적으로 『주역』에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8괘와 64괘를 막론하고 건괘와 곤괘는 모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단전」은 태괘와 비괘에서 건괘를 양으로, 곤괘를 음으로 해석하여 무엇이 양괘이고, 무엇이 음괘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언전」은 한발 더 나아가 ‘효의 위치(爻位)’와 ‘효의 상(爻象)’을 결합 함으로써 「상전」의 해석을 강화시켰다. 즉 건괘의 초구는 양효로써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괘 초구의 위치는 地下의 위치이다. 통상 두 번째 효가 지표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양기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고, 곤괘의 상육은 음효로써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곤괘 상육의 위치는 天上의 위치이다. 통상 다섯 번째 효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음이 양과 비슷하면…양이 없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단전」과 「상전」은 단지 ‘--’이 양효이고, ‘--’이 음효라는 것 그리고 ‘--’이 양효이고, ‘--’이 음효라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사하」에서는 “건곤은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여 건·곤 양괘가 『주역』을 이해하는 관건이 됨을 밝혔다. 그렇다면 건곤(음양)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곤(음양)의 성질을 규정해야만 음양관념을 통해서 『역』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계사하」에서는 또 “역은 상(象)이니 상이라는 것은 표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건은 양물이고, 곤은 음물이다. 음양이 덕을 합함으로써 강유(양효와 음효)의 형체가 갖추어지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천지의 수(자연의 모든 변화)를 체현하게 되며, 신명의 덕(변화의 원리-이상 역자)에 통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역』은 표상이다. 『주역』에서 양은 건으로 표상되고, 음은 곤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건·곤이 서로 그 특성(德)을 융합함으로써 64괘 강유의 형체가 만들어진다. 64괘의 표상을 통해서 자연을 체찰하고, 신명에 통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역은 천지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도를 보편적으로 종합한다(계사상)”고 한 것이다. 이러한 ‘천지의 도’는 양효(-)와 음효

(--) 혹은 건괘(☰)와 곤괘(☷)의 상호 변화와 침투, 전화(轉化)로 표상된다. 그것이 “한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또한 ‘도’ 자체도 ‘변화’로 표현된다. “한번 닫히고(음의 성질) 한 번 열리는(양의 성질) 것을 변화라고 한다(계사상).” 곧 도는 음양의 변화, 번역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은 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역』의 음양화(陰陽化)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주역』은 음양사상의 상징체계가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64괘는 마침내 우주와 인생의 모든 음양변화를 포함하게 되었던 것이다.

「계사하」에서는 “『역』은 …광대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하늘의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고, 땅의 도가 있다. 이 삼재(三才)를 모두 합하여 둘로 곱하였기 때문에 한 괘는 육효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육효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삼재의 도이다”라고 하였다. 한 괘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효에서 위의 두 효는 하늘을 표상하고, 가운데 두 효는 사람을 표상하며, 아래의 두 효는 땅을 표상한다. 이 천·지·인이 곧 삼재이다. 『역』은 “삼재를 모두 합하여”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되는” 정신적 경계를 드러내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괘상은 음효와 양효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천·지·인은 모두 음양의 성질을 부여받는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덩고 추움, 낮과 밤, 남성과 여성, 밝음과 어두움, 흙수와 짙수, 군주와 백성, 군자와 소인, 높은 것과 낮은 것,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강건한 것과 온순한 것,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나아가는 것과 물러서는 것, 퍼지는 것과 움추려 드는 것,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 등은 각각 양과 음의 표상이다. 그리고 『역』 전체는 이러한 음양변화의 표상이다.

‘도’의 표상으로서 그리고 우주와 인생의 표상으로서 『역』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광대함은 천지와 비견되고, 변화는 사시와 비견되고, 음양의 운동은 일월과 비견되고, 운동의 간이한 속성은 천지의 지극한 덕과 비견된다(「계사상」).” “천지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의 운행과 어긋남이 없고, 그 지혜가 만물에 두루 미치고 그 도가 천하를 구제할 만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같은 곳).” “천지의 변화를 모두 포괄하여 어긋남이 없이 없고, 세세한 곳에까지 만물을 완성시켜 빠뜨림이 없다.” 그러나 여하간

『역』은 ‘비견되고’, ‘비슷하고’ ‘포괄하고’ ‘세세히 완성시키는’ 것이지 음양 변화의 도 그 자체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전』 특히 「계사전」의 작자가 『역』을 단지 음양관념을 서술하는 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역』에서는 ‘-’을 ‘구(九)’라 하고 ‘--’을 ‘육(六)’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 ‘--’은 이미 『역전』에서 양·음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숫자도 음양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숫자도 음양사상의 틀이 되었던 것이다. 「계사전」에서는 “양괘는 홀수이고, 음괘는 짝수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된다. 즉 “일·삼·오·칠·구는 하늘의 수이고, 이·사·육·팔·십은 땅의 수(「계사상」)”라는 것이다. 「계사상」에는 “대연(大衍)의 수(數)는 50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49이다.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는 서법(筮法)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서법은 번잡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차례 운용하여 『역』을 이룬다(같은 곳)”는 것이다. 즉 네 차례 댓가지를 운용하는 것이 하나의 ‘변(變)’이 되며, 세 번의 ‘변’을 거친 후에 하나의 수를 얻는데, 그것은 7, 8, 9 혹은 6이다. 이 때 7은 소양, 8은 소음, 9는 노양, 6은 노음이 된다. 얻어진 수에 근거하여 음효인지 양효인지가 결정되는데 6, 8은 음효이고, 7, 9는 양효이다. 6과 9가 각각 노음과 노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역』의 괘에서는 양효를 ‘구’라 하고, 음효를 ‘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계사전」은 數를 음양화 시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추연이 “음양의 소식을 깊이 관찰하였다”고 하였지만 오덕 종시설에서는 음양관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십익에서도 역시 오행관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설괘전」에서 팔괘가 오행이 배속되며, 그에 따라 오행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견강부회(牽強附會)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설괘전」은 팔괘를 팔방, 즉 사방과 사우(四隅“각방의 중간지점·역자)에 배속하면서도 유독 오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 곳, 즉 중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설괘전」에서는 팔괘가 표상하고 있는 사물로 금·목·수·화를, 그것을 표상하는 색으로 적·흑·황·백색을 들고 있지만 거기에도 오행의 의미는 없다. 이 점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열거함으로써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은 하늘이고…금이며…크게 붉은 것이다” 오행사상에서 금은 백색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크게 붉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곤은 땅이고…땅에서는 검은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땅’을 ‘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설괘전」의 “곤은 땅이고”라는 말은 “건은 하늘이고”라는 말과 상대되는 말이며, ‘땅’도 ‘하늘’과 상대되는 뜻이다. 또한 ‘땅’에는 ‘토(土)’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 돌, 물, 못 등이 있으며, 최소한 물과 물으로 양분된다. 더욱이 ‘토’의 색은 황색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검다고 하였다. 검다는 것은 어둡다는 의미이며, 여기에서는 ‘하늘’의 밝음에 상대하여 ‘땅’을 검은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震)은 …흑황색이다.” 「설괘전」에 따르면 진은 동방에 해당한다. 오행사상에서 동방은 목이고, 청색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흑황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손(巽)은 목이고…하얀 것이다.” 오행사상에 따르면 목의 색은 청색인데 반하여 여기에서는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감(坎)은 수이고…피의 색이며, 붉은 것이다.” 오행사상에서 수는 흑색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그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이(離)는 화이고…건괘이다.” 이괘는 화이고, 건괘는 금이다 그런데 어떻게 離 괘가 건괘로 나타나는지는 지금의 오행사상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설괘전」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음양·오행관념은 서로 융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행사상과 『역전』의 음양설 중 어느 것이 먼저 출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계사전」을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서는 하늘에서(일월성신의) 형상을 보았고, 굽혀서는 땅에서(온갖 사물의) 이치를 보았으며, 날짐승이나 들짐승의 아름다운 모습과 각 지역에 적당한 생물들이 무엇인가를 관찰하여 가까이에서는 몸에서 상을 취하고 멀리로는 사물에게서 상을

취하였다. 이에 처음으로 팔괘를 만들어서 만물 변화의 신묘한 원리에 통달하고 만물의 실정을 분류하였다. 노끈을 매어서 그물을 만들고 짐승이나 고기를 잡은 것은 대개 이괘(離卦)의 상에서 취한 것이다. 복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그를 이었다. 그는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었으며, 보습과 쟁기의 이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으니 그것은 대개 익괘(益卦)의 상에서 취한 것이다. …신농씨가 죽자 황제와 요·순이 그를 이었다. …황제와 요·순은 옷을 만들어 천하를 다스렸으니 그것은 대개 건괘와 곤괘의 상에서 취한 것이다.

오덕종시설은 황제로부터 시작되며, 「홍범」 오행설은 우왕에게 가탁된다. 그런데 「계사전」의 작자는 팔괘가 복희(伏羲=包羲)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고대 중국의 사상계는 늦게 나타난 학설일수록 더욱 고대 인물에게 그 학설을 가탁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계사전」은 오덕종시설이나 「홍범」 오행설에 비해 늦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계사전」의 역사적 계통에서는 황제가 복희나 신농의 아래에 위치한다. 따라서 복희나 신농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위치하게된 연유는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밖에도 『사기』 「역서」에서는 황제가 “오행을 건립하고, 소식(消息)을 일으켰다.”고 하였는데, 「계사전」에서도 “황제가 …건괘와 곤괘의 상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식이나 건곤은 모두 음양을 가리킨다. 「계사전」의 작자도 음양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황제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물론 이것은 팔괘가 음양오행사상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 「계사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미 그와 유사한 전설이 유행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사전」에 한해서만 긍정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역전』은 여러 시대에 걸친 저작이며, 「단전」이나 「상전」은 「계사전」보다 먼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대의 학자들은 『역전』의 대부분이 운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노자』나 『장자』, 『초사(楚辭)]의 운율과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배경은 내륙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고증한 바 있다. 『역전』을 보면서 우주의 근원과 천지만물, 인류문화의 기원을 탐구하는 강렬한 의지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장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복희나 신농, 황제, 요·순

등 전설적인 인물들은 성왕이자, 문화창조자, 기술의 발명가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의 다양한 모습은 내륙문화의 관념체계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내륙문화의 어떤 중요한 관념을 포용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상전」에서는 ‘선왕’이나 ‘군자’를 들어 도덕적 설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사전」에서는 “점을 치지 않을 따름이다”라는 공자의 『주역』의 해석방법을 채택하여 「이괘(履卦)」、「겸괘(謙卦)」、「복괘(復卦)」、「항괘(恒卦)」、「손괘(損卦)」、「익괘(益卦)」、「곤괘(困卦)」、「정괘(井卦)」、「손괘(巽卦)」 등의 괘의를 해석하고, ‘덕’을 근본으로 삼는 관념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된 괘의는 대부분 본래의 『주역』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곧 『역전』도 내륙문화의 관념을 동화시키고서 그것을 자기 사상체계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던 것이다.³⁶⁾

다. 新儒學의 陰陽思想

전통적인 유가는 도(道)로부터 이미 꺼진 재처럼 식어가던 정신을 흡취하여 새로운 사상체계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탄생된 것이 바로 송명리학(宋明理學)이라고 할 수 있다. 송대 유학의 부흥에는 대단히 복잡한 사상적·문화적 배경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의심할 나위 없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가(道家)를 빌려서 유가(儒家)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실상 유가와 도가는 두 개의 전통이면서도 동일한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가를 빌려서 유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었다. 이학(理學)의 탄생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학은 먼저 ‘천’ ‘도’와 음양오행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태극도(설) 太極圖(說)」은 이학(理學)³⁷⁾의 가장

36) 양계초, 풍우란 외, 앞의 책, 522~531쪽 참조.

37) 성리학은 중국 송(宋)·명(明)나라 때 유학의 한 계통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문으로 주자학과 육왕학파가 그 주역을 담당했다. 본성론은 선진시대(先秦時代)에 크게 토의되어, 맹자의 성선설이 근세기 본성론의 정통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북송시대 정호(程顥)·정이(程頤)형제가 나타난 뒤에 크게 부흥하였으며,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은 남송의 주희(朱熹:朱子)였다. 주자는 『중용』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맹자의 성선설을 연결하여 성선의 보편적 근거

중요한 경전 문헌 가운데 하나로 중국 북송 때의 성리학자인 주돈이가 지은 책으로 「태극도」라는 하나의 그림과 그것을 설명하는 250자의 「설(說)」로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나타내고 아울러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논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적지만 동중서 이후 가장 체계적인 우주—인생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태극도(太極圖)」 원래 도교로부터 나온 것으로, 『송사(宋史)』 「주진전(朱震傳)」에는 「선천도(先天圖)」(복희팔괘) 「하도」 「낙서」 및 「태극도」의 전승 계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것들은 모두 화산(華山)의 도사 진단(陣搏)에게서 나온 것이다. 「태극도」의 구조로 볼 때 그 주요한 부분은 『주역참동계』의 「수화광곽도(水火匡廓圖)」와 「삼오지정도(三五至精圖)」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장(道藏)』의 『상방대통진원묘경품(上方大洞眞元妙經品圖)』에 수록되어 있는 「태극선천도(太極先天圖)」와도 유사하다. (앞 쪽 책 참조)

『송사』 「도학전」에서는 「태극도(설)」이 “천리의 근원을 밝히고, 만물의 시종을 궁구하였다”고 하였다. 「태극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를 천명(天命)에서 찾았고,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만인이 항거불능한 선천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천명은 천리(天理)라고도 하며, 성선설은 성즉리(性卽理)설로 표현되었다. 육상산(陸象山)·왕양명(王陽明) 등 심학노선(心學路線) 사상은 성선설을 전제하면서 심즉리설을 주장하였다. 성선설이란 자기의 힘에 의한 자기의 구제가 가능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성리학이란 그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은 중국에서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의 사상적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주계의 이학(理學)이 발달하고, 육왕계의 심학은 발달하지 못했다. 성리학은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는데, 우주·자연 및 인성(人性)에 대한 본체론적 형이상학 탐구가 깊어진 것과 심성수양의 철저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성리학에서는 본체론적 형이상학을 매우 깊이 탐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천명, 태극, 천리, 성명(性命), 의리(義理), 음양, 이기(理氣), 심(心), 성(性), 정(情), 인심(人心), 도심(道心), 사단칠정(四端七情) 등을 자주 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와 대항하던 성리학자들이 불교의 연기(緣起), 법계(法界) 등의 깊은 형이상학과 참선같은 깊은 수행이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특징이 유학에도 갖추어져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이 송나라때 신유학이라고 지칭되는 것과 같이 이전의 유학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성리학의 대가로는 이황과 이이를 꼽을 수 있는데, 한국성리학의 특징으로는 ① 정주학 절대우위 ② 주지주의적 경향 ③ 예(禮)를 절대시하는 풍조 ④ 명분론적 사고의 팽배 ⑤ 주리론(主理論)적인 보수성 ⑥ 인존정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14권 831쪽 참조.

무극(無極)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해 진다. 고요해져서 음을 낳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이 서로 그 근거가 된다. 양으로 나누어지고 음으로 나누어짐에 양의(兩儀)가 정립되었다. 양이 변화하고 음이 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는다. 오기(五氣)가 고르게 퍼져 사시가 운행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무극에 근본한다. 오행이 생겨날 때에 각각 그 성품을 가진다. 무극의 진체(眞體)와 이오(二五:음양오행)의 정수가 묘합(妙合)하여 응결된다. 건도(乾道)는 남성을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성을 이룬다. 이기(二氣)가 교감하여 만물이 화생한다.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변화가 무궁하다. / 오직 사람이 오행의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영묘한 존재가 되었다. 형체가 이미 생김에 정신에서 지혜가 나왔다. 오성(五性)이感動하여 선악이 나누어지고, 만사가 그로부터 나온다. 성인은 그것을 중정(中正)·인의(仁義)로써 정리하면서도(自主:“성인의 도는 인의·중정일 따름이다”) 고요한 것을 위주로 하여(自主:“욕심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 인극(人極)을 세웠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여, 사시와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을 합한다. 군자는 그것을 닦아서 길하고, 소인은 그것을 거슬리어 흉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고 하고, 땅의 도를 세워서 강과 유라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고 한다’고 하였고, 또 ‘처음을 더듬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안다’고 한 것이다. 크도다 『역(易)』이여! 이것이 그 지극한 것이다.³⁸⁾

태극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의 천인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최고의 범주는 무극-태극이며, 기본범주는 음양·오행·천·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동중서가 말한 천의 ‘열가지 표현태’와 비슷한데 「태극도설」은 음양과 오행이 모두 태극에서 나왔음을 분명히 하고, 태극은 무극에 근본하는 것이며, “오기가 고르게 퍼진다”. “이기(二氣)가 교감한다”는 말은 음양·오행이 모두 기(氣)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람은 음양오행의

38)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動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陽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金木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五行之精妙合而凝 乾道成男坤道成女 理氣交感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惟人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 曰立天之道 曰陰與陽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大哉 易也 斯其 至矣.

빠어난 기운을 얻어서 가장 영묘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만물보다 높은 존재이다. “인극을 세운 성인은 사실 동중서가 말한 천·지·인 세가지 도를 관통하는 왕(王)이다.

무극과 태극에 대해서 「도설(圖說)」은 명확한 해석이나 규정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주돈이는 『통서(通書)』 「이성명(理性命)」에서 “이기(二氣)와 오행이 만물을 화생한다. 다섯 가지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 두 가지 실질이요, 두 가지 실질의 근본은 하나이다. 이 때문에 만가지는 하나가 되고, 하나의 실질은 만 가지로 나뉜다. 만가지나 하나는 모두 올바르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정립되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태극을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또 「이성명」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을 살펴보면 ‘하나’가 리(理)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태극(하나)은 리(理)이고, 이오(二五:음양·오행)는 기(氣)이다. 따라서 이기관념의 단서는 주돈이로부터 제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설」의 ‘무극’에 대한 후세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하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양의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 하였고, 『노자』는 “도는 일을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 “유는 무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극이 「계사전」에서 말하는 ‘역’, 『노자』에서 말하는 ‘도’ 혹은 ‘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태극은 『계사전』의 태극이고, 『노자』의 ‘일’ 혹은 ‘유’이다. 또 음양은 「계사전」의 이른바 양의(兩儀)이고, 『노자』의 이른바 ‘이’이다. 그렇지만 「도설」의 마지막에서 “크도다 『역』이여”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돈이가 기본적으로 『주역』 「계사전」의 의미에서 무극-태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극은 곧 “역(易)에는 태극이 있다”는 말에서의 『역』이다. 정현은 “태역(太易)은 무(無)이고, 태극은 유(有)이다. ……태역은 이치는 가지고 있지만 형체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역위건곤착도(易緯乾坤鑿圖)』의 ‘太陽이 처음 드러남에 太極이 이루어진다. 태극이 이루어지고서 건곤이 운행한다’는 구절에 대한 정현의 주)”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주희에 와서야 비로소 분명히 언급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태극도설」과 「계사전」, 동중서, 『역

위』에 면면한 계승의 맥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태극도설』의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은 생성의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다. 이 점은 주돈이의 “수의 음은 양에 근거하고, 화의 양은 음에 근거한다.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다. 사시가 운행하고,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 번 합하고 한 번 열리니 무궁할 뿐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된다. 음은 양에 속해 있고 양은 음에 속에 있으며, 음양은 오행속에 있고, 태극은 음양과 오행속에 있고, 태극·음양·오행도 사시와 만물 속에 있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선후의 구분도 없다. 즉 사시의 운행과 만물의 변화만이 끝이 없을 따름이다.

다음으로 태극도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理氣論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주돈이 이후 장재(張載)는 기학설(氣學說)을 발전시켰고, 이정(二程)은 이학설(理學說)을 발전시켰다. 주돈이는 음양오행을 기로 보았다. 그에 비해 장재는 ‘유(有)’는 모두 ‘기(氣)’로 파악하였다.

무릇 형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유’이다. 모든 ‘유’는 표상「象」이다. 모든 표상은 ‘기’이다(『正蒙』「乾稱」)

‘유’는 표상을 가지고 있다. 곧 기가 모인 상태이다. 그러나 기가 흩어진 상태는 ‘무’가 아니다. 장재는 그것을 ‘태허(太虛)’라고 한다. “만물은 흩어져서 태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태허는 형체가 없으니 기의 본체이다(이상 같은 책, 「太和」).” 여기서 본체는 우리들이 현재 말하는 서양철학적 의미의 본체가 아니라 기가 흩어진 상태이다. “태허에는 기가 있을 수 없다.(위의 책 같은 곳).” 이 태허는 ‘태극’과 유사하다. 태허는 일기(一氣)이다. 그렇지만 일기 가운데에는 음양의 두 가지 성질이 포함된다.

일물(一物)이면서도 양체(兩體)이니 그것이 기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신묘하고, 둘이기 때문에 변화한다.(위의 책, 「參兩」).

일기(一氣:一物)가 흩어져서 아직 모이지 않았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드러나지 않는 것이 ‘신묘함’이다). 그렇지만 일기 중에는 음양의 두 가지

성질(兩體)가 있기때문에 만물을 화생할 수 있다. 일기와 음양의 두 가지 성질은 서로 체용(體用)이 된다.

두 개(의 대립물)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의 통일체)를 볼 수 없다. 하나를 볼 수 없으면 두 개의 작용이 멈춘다(같은 책 「태화」).

위에서 나타나는 ‘두 개’는 음양이고, ‘하나’는 태극이다.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있게 되니 그것이 태극이다(『易說』).” 태극과 음양은 모두 기이다. 그렇지만 장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

천지의 기는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배척하고 끌어당기지만 그 리(理)는 질서가 있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같은 곳)

위에서 표현하고 있는 리(理)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질서가 있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태어남에는 선후가 있으니 그것이 하늘의 순서가 된다. 작은 것이나 큰 것,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은 모두 함께 태어나고 함께 모습을 갖춘다. 그것이 하늘의 질서가 된다. 하늘이 사물을 낳는 것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물체가 생겨난 이후에 질서가 있는 것이다(같은 책, 「動物」).

이렇게 보면 ‘하늘의 순서’ ‘하늘의 질서’라는 것이 이(理)이다. 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운동하면서도” “질서가 있어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이(理)가 있기 때문이다. 태허에는 氣와 理가 있다. 理가 ‘하늘의 순서’이고 ‘하늘의 질서’이다. 따라서 태허로부터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며(위의 책 太和), “태허는 하늘의 실질이다(『張子語錄』 中卷).” 따라서 태허는 천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재의 사상체계에서 기와 리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리(理)의 화설은 이정에 의해 큰 변화과정을 겪는데, 이의 체험세계 전체를 서술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전통적인 천도, 자연의 개념을 통일하였다. 정호(程顥)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理)이다(『程氏遺書』 권11).

이에 정이(程頤)도 유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늘에는 이가 있으니 성인은 그것을 따라 행동한다. 그것이 이른바 도이다(같은 책, 권12)

따라서 理는 天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천과 리는 이명동의어(二名同意語)인 것이다. 또한 동중서가 제시한 “하늘을 본받아서 도를 세운다”라는 말은 리와 도의 관계가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정은 리(理), 천(天), 도(道), 모두가 형이상이며 기(氣)는 형이하라고 주장을 하였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니 도는 음양이 아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할 수 있는 근거가 도이다(같은 책, 권2).

음양을 떠나서는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음양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도이고, 음양은 기이다. 기는 형이하이며, 도는 형이상이다(같은 책, 권15).

따라서 음양은 도와 일치할 수 없는 것으로써 그것은 단지 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도는 음양의 근거이다. 그러나 도는 음양 가운데 존재한다. 따라서 형이하의 음양의 기를 통해서 형이상인 도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리는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象)에 의거하여 리를 밝힌다.” 라는 내용은 음양과 오행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갖추고 천의와 천도를 알리고자 한 동중서의 방법이기도 하다.

리(천,도)는 형이상의 것이지만 오히려 체험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천하의 리는 하나이다. …사물에는 여러 가지 분화된 형태가 있고, 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로 통일된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의 리이다”. 그 이유는 만물은 하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늘은 만물의 시조이다”

라는 동중서의 말은 이와 같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리(천,도)를 파악하는 것이 곧 체험세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물에 나아가서 리를 궁구함(격물궁리(格物窮理))”으로써 “지(知)에 이르는 것(致知)”이다. ‘지’라는 것은 도를 알고, 도를 깨치는 것으로, 따라서 이정(二程)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氣)가 아닌 리(理)인 것이다.

후대에는 이기론과 관련하여 그것을 집대성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理氣라는 대개념과 道가 氣의 근본이라는 관념은 理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선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단지 위서인 『낙서영준청(洛書靈准聽)』만 보더라도 “태극은 이를 가지고 있으니 기의 근원이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후한 말대의 왕부(王符)도 “도덕의 작용은 기(氣)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도는 기의 근원이다(『잠부론(潛夫論)』 「本訓」)”이라고 하여 기가 도의 작용이고, 도가 기의 근본임을 밝혔다.

물론 이학의 경전으로서 『태극도(설)』은 도교사상으로 직접 시사를 받은 것이었다. 『국사(國史)』, 『염계전(濂溪傳)』에 따르면 『도설』의 첫 구절은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무극은 ‘무’이고, 태극은 ‘유’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유는 무에서 생긴다”는 노자의 명제이다. 주희는 논리상의 문제점과 『태극도』와 『태극도설』간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글의 첫머리를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것으로 고쳤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말은 “역에는 태극이 있다”는 『계사전』의 말이나 “태역은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형체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정현의 말과 더욱 접근한다. 주희는 “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말은 형체는 없지만 이는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주자어류』 권94)”라고 하였다. 주희의 사상체계에서는 ‘리가 없거나’ ‘형체가 없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들이 ‘무’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확실히 ‘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최소한 ‘무’라는 것은 있다). 무엇이 ‘있는가?’ 주희는 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가 무로부터 생겨난다고는 할 수 없고, 형체가 무로부터 생겨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주희는 이른바 무극은 형체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고, 태극은 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말은 형체는 없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희는 “태극은 오행·음양의 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공허한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극은 “천지만물의 이의 총체이다.” 곧 ‘이’의 총칭인 것이다. “성인이 태극을 말한 것은 천지만물의 근본을 가리키기 위함이다(주자어류).” 태극과 음양의 관계는 이와 기의 관계와 같다. “태극은 이이고, 음양은 기이다(『太極圖說解』).” “태극은 음양을 낳고, 리는 기를 낳는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와 기는 생성하고 생성되는 관계이지만 실제적으로 양자는 병존한다. “음양이 생겨나면 태극은 그 가운데 있고, 이는 다시 기 가운데 존재한다(『朱子大全』 권 1 集說).” “리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이는 그 속에 존재한다(『주자어류』 권94).” “기가 모이지 않았을 때에는 리도 부착될 곳이 없다(같은 책 권1).” 이러한 말들은 “음양을 떠나서는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정의 말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이상적인 이는 형이하의 기·음양오행을 통해서 나타난다.

理는 볼 수 없으니 음양을 통해서야 알 수 있다. 理는 음양위에 실려 있으니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다가 오행을 낳게 되면 기질의 구애를 받지만 …… 태극은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위의 책, 권94)

따라서 음양오행은 단지 理의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태극도설』에서는 음양을 이기(二氣)로, 오행(五行)을 오기(五氣)라고 하였다. 그에 비해 주희는 ‘기(氣)를 다시 ‘기’와 ‘질(質)’로 구분한다.

기의 맑은 것이 기가 되고, 탁한 것이 질이 된다. (같은 책, 권3).

음양은 기이고, 오행은 질이다(같은 책, 권1)

음양은 맑은 기이고 오행은 탁한 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천지만물은 모두 음양과 오행을 통해 구성된다.

‘양이 변화하고 음이 합하여 수·화·목·금·토를 낳는다’는 것은 음양은 기이고 오행이라는 질을 낳는다는 의미이다. 천지가 사물을 낳는 과정에서 오행이 가장 먼저 존재한다. ……천지 사이에 오행이 아닌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행과 음양이 합쳐지는 것이 사물을 낳는 재료이다. (같은 책, 권 94)

‘리’ ‘기’ ‘질’에 대한 주희의 이러한 학설의 연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위건착도』의 우주발생론이다. “태역(太易)이라는 것은 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태초(太初)라는 것은 기의 시작이며, 태시(太始)라는 것은 형체의 시작이고, 태소(太素)라는 것은 질의 시작이다”. 주희는 위의 책에서 기(태초), 형체(태시), 질(태소)이라는 세가지 상태를 기(음양), 질(오행)이라는 두가지 상태로 개조한 것이다. 기와 질은 모두 형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체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송대 중엽에 주돈이가 비록 “성현들의 전해지지 않는 학문을 얻어” 『태극도설』을 지었지만 그 설명은 여전히 자세하지 않았다. 이정(二程)은 도와 기를 분리시켰고, 그것이 주희에 이르러서야 정결하고 광활한 리의 세계가 열렸던 것이다. 그 세계의 체현자로서 음양오행의 진실한 의미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³⁹⁾

Ⅲ.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합덕

1.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개념을 살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경』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내용에 한정하여 그것을 살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개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세세히 살피는 일은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요하는 것이므로 자칫 그로 인해 본래적 취지나 논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과 관계된 『전경』의 내용 중에 주목할 대상으

39) 양계초, 풍우란 앞의 책 594쪽~616쪽 참조.

로는 “팔음팔양(八陰八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의 진액(津液)이라고 설명되는 다섯 종류의 주문(呪文) 즉 오주(五呪)에 나타난 표현이다.⁴⁰⁾ 그곳에 나타난 “팔음팔양(八陰八陽)”에 관한 본질적 내용의 파악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팔음팔양”은 문자해석의 특성상 음양의 대상을 여덟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전경』의 「음양경(陰陽經)」에 나타나고 있다. 「음양경」의 주요한 내용은 먼저 여덟 가지의 특징적 대상을 통하여 그것을 음양으로 대별하여 분류하고, 그 뒤에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의 특징을 설명하는 원리나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乾)이 정(定)하면 땅(坤)은 따르고,

하늘(乾)은 양(陽)이며, 땅(坤)은 음(陰)이다.

해와 달(日月)은 운행하며, 해(日)는 양이며, 달(月)은 음이다.

신과 인간(神人)이 있는데 인간은 양(陽)이고, 신(神)은 음이다.

수컷과 암컷(雌雄)이 있는데, 암컷(雌)은 음(陰)이고, 수컷(雄)은 양(陽)이다.

안과 밖(內外)이 있는데, 안(內)은 음(陰)이고, 밖(外)은 양(陽)이다.

오른쪽과 왼쪽(左右)이 있는데, 왼쪽(左)은 음(陰)이고, 오른쪽(右)은 양(陽)이다.

숨어 있는 것과 나타난 것(隱現)이 있는데, 숨어 있는 것(隱)은 음(陰)이고, 나타난 것(現)은 양(陽)이다.

앞 뒤(前後)가 있는데, 뒤(後)는 음(陰)이고, 앞(前)은 양(陽)이다.

천지의 일은(天地之事) 모두 이(皆是) 음양 가운데 이루어짐이 있고,(陰陽中有成)

만물의 이치(萬物之理)는 모두 이(皆是) 음양 가운데 이루어짐이 있다.(陰陽中有遂)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天地以陰陽成變化)

신과 인간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神人以陰陽成造化)⁴¹⁾

40) 『전경』, 교운, 1장 30절.

참고로 위에 나타난 음양경에 관한 해석은 필자가 스스로 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음양경」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건(乾)·곤(坤), 일(日)·월(月), 신(神)·인(人), 자(雌)·웅(雄), 내(內)·외(外), 좌(左)·우(右), 은(隱)·현(現), 전(前)·후(後) 등의 여덟 가지 대상을 통해 그것을 음양으로 나타내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의 표현형태를 살펴보면 하늘과 땅→해와 달→신과 사람→수컷과 암컷→안과 바깥→왼쪽과 오른쪽→숨어 있는 것과 드러나 있는 것→앞과 뒤 라는 순서에 따라 그것을 음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먼저 이러한 일련의 순차(順次)에는 어떠한 의미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음양경」에서 여덟 가지의 특정한 대상과 관련하여 그것을 앞에 표현된 네 가지 음양적 대상 즉 건곤, 일월, 신인, 자웅과 뒤에 열거된 네 가지의 대상 즉 내외, 좌우, 은현, 전후로 나누어 그것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열거한 네 가지의 대상과 뒤에 열거한 네 가지의 대상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이유에 착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 살펴본 여덟가지의 음양적 대상 뒤에 전개된 뒤에 글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면 앞에 열거한 네 가지의 대상은 천지의 일(天地之事)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뒤에 열거된 네 종류의 음양적 대상은 천지의 이치(天地之理)와 관련한 것으로 파악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 열거한 네 가지의 대상과 뒤에 열거한 네 종류의 대상에는 각기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앞의 네 가지 음양적 대상은 인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자의나 타의에 의해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한 존재이고, 동시에 스스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행위(行爲)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이 수동적(受動的)이든 또는 능동적(能動的) 이든 간에 의지의 표현이나 행위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뒤에 열거된 네 종류의 대상은 그러한 조

41) 乾定坤順 乾陽坤陰 日行月行 日陽月陰 有神有人 神陰人陽 有雄有雌 雌陰雄陽 有內有外 內陰外陽 有右有左 左陰右陽 有隱有現 隱陰現陽 有前有後 前陽後陰 天地之事 皆是陰陽 中有成萬物之理 皆是陰陽 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

「전경」 교운, 2장 42절.

건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대상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발적 행위가 불가능한 부동적(不動的)대상이라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사실은 팔음팔양의 내용 뒤에 전개된 내용 즉 “天地之事” 그리고 “天地之理”와 관련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음양경」에 나타난 천지의 일(天地之事)은 분명히 그 의미상 어떤 특정 행위나 그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천지의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대상은 자의(自意)든 아니면 타의(他意)든 반드시 무엇인가를 표현 할 수 있는 행위가 스스로 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데 행위실현의 가능성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천지의 이치(天地之理)는 행위나 그것의 표현 가능성에 관계 없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고정적(固定的)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스스로의 의지나 행위에 의한 표현이 불가능한 대상일지라도 충분히 특정한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짐이 있다는 뒤의 내용에 주목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또는 실현 가능한 대상은 앞에 열거한 대상 즉 능동성(能動性)이나 수동성(受動性)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 뒤에 열거된 부동성(不動性)을 지닌 대상은 천지의 이치와 관련하여 음양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는 상제께서는 천지의 일을 새롭게 이루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기 위해(천지공사) 이 땅에 강세를 하셨는데, 상제께서 계획하신 천지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앞서 열거한 네 가지의 특징을 지니는 대상과의 관계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앞서 열거한 내용에 나타나는 대상은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존재이며, 그 대상을 통해 음양의 조화나 작용을 통해 그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천지공사의 내용중에서는 [도수]를 뜯어 고친다. 등의 내용이 표현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리나 이치 등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능동성을 지닐 수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의 적용범위와 한계 그리고 음양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적 대상이 그것이 능동성을 지니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이든 간에 음양의 이치 속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의 이치와 변화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삼라만상의 만물과 원리에 까지 그 범위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음양의 원리하에 지배되고 있는 대상들은(능동성과 부동성을 지닌 것) 서로 작용과 교감을 통해 음양의 전체적 변화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경」에 나타나는 만사(萬事)나 만물(萬物)은 음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결과적인 사실은 특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체적 대상이 음양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음양의 변화나 조화를 대순진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거기에는 합덕(合德)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뒤에 전개될 합덕의 의미를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하간 음양합덕은 음양의 조화나 음양의 변화에 앞서 미리 전제되어진 음양의 특성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에 음양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덕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조화나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덕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리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의 특징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앞서 열거된 음양의 대상들에 한정시켜 그것을 전반적으로 천지공사의 원리에 기초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하시고자 했던 대상을 크게 천지인 삼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속에서는 앞서 살핀 능동성, 또는

수동성을 지닌 대상⁴²⁾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수(度數)나 상도(常道)처럼 인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 않는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적(不動的) 대상⁴³⁾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상제께서는 이러한 모든 대상들을 통해 천지공사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과 관련하여 제시된 “팔음팔양”과 「음양경」의 내용에 나타난 순차적 대상들의 의미는 이와 같이 천지공사와 관련을 해 볼 때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 하나씩 세분화하여 천지공사와 관련지어 살펴본 다음 그것이 천지공사와 대순진리의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음양관념 즉 어떠한 조건과 내용을 지니는가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것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하여 대순진리에 나타나 있는 음양개념과 나아가 음양합덕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음양경」에 제시된 첫 번째 대상인 건(乾)과 곤(坤)⁴⁴⁾ 즉 하늘과 땅

42) 『전경』, 공사, 1장 1절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는 내용을 살펴볼 때 개벽 또는 광구(匡救)의 대상으로서 인간과 신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와는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 즉 자웅(雌雄)과 관련한 대상도 논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전경』 행록, 2장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제께서 대원사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 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 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

43)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경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겠다. 『전경』, 공사, 1장 3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중략…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선경을 세워서…중략…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중략…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라는 내용은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44) 이른바 건곤(乾坤)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적인 하늘(天)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즉 하늘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특성을 생각하여 볼 때 그것을 단순히 음양적 대상으로서의 하늘 또는 땅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乾坤을 통해 음양을 규정한 것은 乾坤이 지니는 특성이 기존에 우리가 인식해 왔던 하늘땅과 비교해 볼 때 음양적 특성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내거나 대별하는 의미가 강하

이 지니는 음양적 특징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겠다.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⁴⁵⁾ <예문 1>

……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厚薄)의 시비가 있고……⁴⁶⁾ <예문 2>

……天用雨露之薄卽 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卽 必有萬物之怨 ……⁴⁷⁾
<예문 3>

먼저 위의 <예문 1>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순진리에서 음양으로 대표되는 하늘(乾)과 땅(坤)은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음양의 상대적 특성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선천의 음양관의 총체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선천세계에 나타나는 음양개념은 부조화와 불평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지덕(地德)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그것에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그것을 일체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유를 地德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다.

地德은 ‘땅의 덕’ 즉 陰德을 의미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선천세계는 음양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해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이 일체화되지 못한 까닭으로 합덕이 실현되지 못했던 세계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덕을 통한 후천세계의 필요성과 아울러 대순진리의 음양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1>에 나타나는 대순진리의 음양관념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음양합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것을 통해 완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음양 불균형의 결과는 <예문 2>의 내용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5) 『전경』, 교법, 1장 62절.

46) 『전경』, 교법 3장 6절.

47) 『전경』, 행록, 3장 44절.

럼 하늘과 땅이 각각 명천과 노천 그리고 후박의 차이와 시비를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결과는 불편(不便)한 대상으로 하늘과 땅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예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열거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만방(萬方)과 만사(萬事)에 원을 낳게 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순진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곤(乾坤)을 통해 본 음양관념의 특징과 조건은 결과적으로 조화 또는 합덕의 당위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내용이며, 천지공사에서 하늘과 땅의 개조와 조정이 절실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천지공사에서 건곤의 조정과 개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적 대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경』에 나타난 일월과 관련한 음양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日月無私治萬物 ……48) <예문 1>
- …… 人行於日月 ……49) <예문 2>
- …… 日月無知人虛影 ……50) <예문 3>
- …… 日月大御命 ……51) <예문 4>
- …… 日月日月萬事知……52) <예문 5>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일월(日月)과 관련한 음양관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예문 1>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일월(日月)이 분명히 음양적 관계에서 서로 작용하며 만물을 샅됨이 없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월이 운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예문 2>의 내용은 그것이 사사로움이 없이 천지만물과 음양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존재라면 당연히 그 속에서는 일월과 인간과의 관련성도 발견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월은 사사로움이 없이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마땅히 인간의 움직임이나 인생도 일월의 그것과 일치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문 3>은 인간과 일월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또

48) 『전경』, 교운, 1장 30절.
 49) 『전경』, 예시 68절.
 50) 『전경』, 예시, 21절.
 51) 『전경』, 예시, 46절.
 52) 『전경』, 교운, 1장 31절.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월도 그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 때 존재가치나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과 일월은 또한 음양적 관계처럼 서로 인식에 있어 상대적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전술한 것처럼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음양적 관계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해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음양적 관계나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거나 한정짓지 않고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그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좋은 예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월과 인간은 매우 밀접한 음양적 관련성 속에서 나타나며, <예문 4>의 내용에서는 일월이나 그것의 운행이 大御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나타나는 大御命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나 어명과 관련한 구절⁵³⁾을 살펴보면 상제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월은 상제님의 도수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당위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천지공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월이 인간과 천지만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다스리는) 존재라면 그것의 바른 운행과 작위(作爲)는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천을 설명하는 특징적 내용과 더불어 일월이 대어명과 관련한다는 사실을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⁵⁴⁾

이처럼 일월에 나타난 음양개념은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음양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53) 「전경」 공사 3장 2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대신이 御命을 받고 그 첫 政事로써 長安에 있는 靑樓의 물정을 물었도다. 이것을 옳은 공사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는 내용을 살펴볼 때 어명은 천지공사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천지공사의 주체가 상제라는 인식을 통해 볼 때 이 곳에 나타나는 어명의 의미는 상제님의 말씀이나 뜻에 따라 움직여 지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54) 「전경」 예시 4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天地大八門 日月大御命 禽獸大道術 時乎時乎鬼神世界]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의 특성상 필자는 그것을 후천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대순진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奉降式은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데, 이때에는 참여한 도인들이 奉降文을 奉誦하는데 그 내용중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개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양은 이처럼 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므로 그것의 강조와 함께 대순진리의 음양관인 합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음양적 관계에 놓여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전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 제생 43절 <예문 1>

김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⁵⁵⁾ <예문 2>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흠향하니라.⁵⁶⁾ <예문 3>

…… 상제께서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 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니라.」 …⁵⁷⁾ <예문 4>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⁵⁸⁾ <예문 5>

위의 전경 내용은 사람과 신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음양적 관계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먼저 <예문 1>의 내용은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예문 2>와 <예문 3>은 인간과 신의 구체적 관계의 설명을 통해 신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관계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은 인간이 죽은 뒤에 변화되어 나타나는 존재로 그 정의를 규정할

55) 『전경』, 교법 1장 50절.

56) 『전경』, 교법 1장 49절.

57) 『전경』, 행록 3장 8절.

58) 『전경』, 교법 1장 54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은 결국 인간과 매우 깊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은 인간존재의 또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3>은 신이 인간과 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인간 역시 그 영역에 속하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신과 인간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은 인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며, 그것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예문 4> <예문 5>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신과 인간은 음양적 관계로서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신은 조화가 가능한 존재이며, 『전경』의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신(神)은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신의 조화는 결과적으로 만유의 조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세상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신과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이며, 이를 통해 완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대순진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완성은 인간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닌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신과의 조화를 통한 완성이 모색되어야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세상의 완성을 위한 방법과 그를 위한 적용범위를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신의 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

또한 『전경』은 신과 인간의 음양적 관계에 주목하여 그것의 조화 또는 합덕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59) <예문 1>

……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60) <예문 2>

59) 『전경』, 예시 7절.

60) 『전경』, 교법 3장 1절.

……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⁶¹⁾ <예문 3>

……심야자귀신지추기야문호야도로야(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62) <예문 4>

……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느니라…⁶³⁾
<예문 5>

위의 전경내용은 신과 인간의 음양합덕의 방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문 1·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명⁶⁴⁾을 인간의 가슴과 뱃속 그리고 마음에 출입⁶⁵⁾케 하여 부족한 것을 고쳐 쓴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신명을 인간에게 출입케하여 음양합덕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신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의 성숙이 전제될 때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명이라는 보다 초월적 존재와의 합일을 위해서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신명은 인간과의 관계(출입)를 통해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웅(雌雄)과 관련한 음양적 내용을 살펴보겠다. 자웅은 대순진리

61) 「전경」, 교법 3장 4절.

62) 「전경」, 행록 3장 44절.

63) 「전경」, 예시 10절.

64) 신명(神明)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순진리에서 천지신명은 상제님의 명(命)에 의해 천지를 주관한다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65) 가슴과 뱃속 그리고 마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 즉 신체적 구조나 명칭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닌 인간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래(古來)로부터 가슴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뱃속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담고 있는 기관으로 오장의 허실(虛實)은 인간의 체질(體質)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질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因子)로 파악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은 인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음양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금수(禽獸)의 한 쌍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즉 인간을 음양으로 표현하면 남녀로 구분되는 것처럼, 자웅이 금수의 한 쌍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수의 자웅도 음양의 범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에서 인식되고 있는 음양은 천지만물과 만물의 모든 이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금수도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 역시 음양조화 또는 음양합덕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금수의 자웅은 이처럼 금수(禽獸)에 한정되어 나타나거나 음양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 그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음양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순진리의 특성상 음양의 합덕 대상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한정되거나 그 체제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에서 음양합덕의 범위나 의미는 객체적(客體的)으로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전체와의 조화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상제께서는 전체와의 조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후천에서 금수의 해원과 관련된 약속을 하심을 볼 수 있었고, 금수가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새롭게 유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경』에서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⁶⁶⁾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금수가 어떤 방법과 원리를 통해 어떤 유형의 도술을 펼쳐 나가는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그것은 이제 까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이다. 즉 짐승이 큰 도술을 펼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후천에서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도통 또는 완성을 이루고 서로 상생·화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음양합덕의 결과적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음양경」 후반에 나타난 음양적 대상에 나타난 음양관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뒤에 전개되는 네 종류의 음양은 能動

66) 『전경』, 예시 4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후천과 관련한 세계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天地大八門 日月大御命 禽獸大道術 人間大積善 時乎時乎鬼神時乎으로 되어 있다.

性を 지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입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내·외는 사물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고, 좌·우는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며, 隱·現은 사물의 상태를, 그리고 전·후는 그것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총체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을 대순진리의 전반에서 탐구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선천의 현실이라는 상황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천의 현실을 내·외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겠다.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겹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예문 1> 67)

선천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 <예문 2> 68)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예문 3> 69)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므로……<예문 4> 70)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예문 5>71)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겨나니라. <예문 6> 72)

67) 『전경』, 공사, 1장 36절.

68) 『전경』, 교법, 1장 63절.

69) 『전경』, 교법, 2장 55절.

70) 『전경』, 교법, 3장 34절.

71) 『전경』, 교법, 3장 35절.

72) 『전경』, 예시 8절.

위의 『전경』 내용을 살펴볼 때 <예문1>은 선천시대의 시작부터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선천시대는 그 출발점부터 심한 고초가 뒤따르는 세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문 2·3·4·5>의 내용은 선천의 현실과 관련하여 인간세계의 전반적인 형태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부정적인 한계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음양의 극심한 부조화가 노출된 세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예문 6>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살핀 『전경』의 내용에서도 이해되는 것처럼, 삼계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막히어 있는 참혹한 재화가 생겨나는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선천세계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나 전환 즉 「개혁」을 필요로 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선천의 내외적 상황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살핀 것처럼 음양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해 합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한계상황을 선천의 현실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은 뒤에 전개될 전후와 관련한 음양관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다음은 전경에서는 좌·우와 관련한 음양관념을 살펴보겠다. 『전경』에서 좌·우와 관련하여 그것을 직접 명시한 음양관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전경』, 공사 2장 20절의 내용으로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심상(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십이백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居住姓名西神司命左相右相八判十二伯縣監縣令皇極後妃所)」라 써서 광찬에게...

위의 『전경』 내용을 살펴볼 때 좌·우와 관련한 음양관념의 내용으로 左相과 右相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좌상과 우상은 이른바 좌의정과 우의정의 別稱으로 선천에서는 삼상제도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모순은 상제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합의를

위한 기구체계 였으나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정사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좌우의 힘이 편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정이라는 직제가 있으므로 힘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좌·우상 중 하나가 영의정에 加勢를 한다면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균형이 깨어지는 결과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제께서는 그것을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하시고 영의정의 직제를 없애 버리고 좌상과 우상만 두는 이른바 政事公事를 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제는 앞서 전술한 것처럼 인격적이거나 능동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좌·우라는 위치개념을 통해 후천정사의 조화적 위치를 강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불균형의 초래로 인해 정사가 어지러워질 것을 염려한 상제님의 세심한 배려로 나타나는 천지공사중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음양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합덕을 강조하는 대순진리적 음양관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隱·現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크게 감추어져 있거나 표면에 드러난 것을 칭하는 전반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선천세계에서 억눌리거나 소외된 계층을 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나거나 지배하는 계층을 現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경』의 전반에 걸쳐 수없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겠다.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⁷³⁾ <예문 1>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자가 일어나며 천한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고 이르셨도다.⁷⁴⁾ <

73) 『전경』, 교법, 1장 62절.

예문 2>

위의 <예문 1>의 내용은 선천세계의 은·현과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것은 이른바 抑陰尊陽 또는 男尊女卑의 세상으로 음양합덕의 不在 다시 말하면 음양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노출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적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선천세계를 한계상황에 빠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바 상제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기 위한 작업을 펼치셨던 것이고, 그 결과는 『전경』의 <예문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隱·現과 관련한 음양관념은 대순진리에서 선천세계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그것의 開關的 필연성을 선명하게 강조한 내용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前·後와 관련하여 대표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先·後가 있는데, 대순진리에서 표현되는 先·後의 광의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先天과 後天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후천에 대한 이해는 대순진리와 관련하여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대순진리의 출현배경은 선천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대순진리의 결과와 목적은 후천선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후천에 대한 인식은 대순진리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선·후천에 관한 이해를 전경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경』에서는 선천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자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⁷⁴⁾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⁷⁶⁾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천세계는 상극→원한발생→常道の 붕괴→진멸

74) 『전경』, 교법, 2장 11절.

75) 『전경』, 공사, 1장 3절.

76) 『전경』, 교법, 1장 1절.

지경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선천의 한계상황은 대순진리 출현의 강한 당위성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것을 각성하지 못한 창생들의 태도는 대순진리의 가르침을 필요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대순진리에 의해 새롭게 匡救된 후천세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후천에서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77)

「후천에서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78)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후천선경은 상생→원한의 해소→도수변화→지상선경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천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음양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대순진리의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대순진리에 나타난 전·후와 관련한 음양관념은 선·후천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면서 음양의 부조화에 따른 선천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대순진리의 의지를 구체적 방향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음양경」의 후반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음양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내외는 裏面과 表面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左右는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隱現은 그것의 상태와 관련한 것이며, 前後는 그것의 진행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분명 하나의 사실이 나타내는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77) 『전경』, 예시, 80절

78) 『전경』, 예시, 81절

것으로 이러한 입체성은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의 이해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하는 기틀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상제님의 공사가 물셀틈없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입체성과 관련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음양합덕은 이렇듯 모든 만물과 상황을 입체적이며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지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음양경」에 나타난 「변화」 또는 「조화」라는 표현이다. 이것을 주목해 볼 때 그것은 합덕의 의미와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화」 또는 「변화」는 결과적으로 합덕을 이루는 원리와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상제께서는 음양합덕의 원리로 만사와 만법 또는 모든 이치를 음양의 「조화」와 「변화」의 원리를 통하여 정하셨다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음양관념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개념의 총체적인 내용은 음양의 불균형과 부조화의 선천세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개조 또는 조정하기 위한 천지공사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순진리에서 강조되고 추구되는 음양개념의 특성을 조화와 강조를 통한 합덕을 주창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이상세계가 건설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사실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원리나 사상적체계로 나타났던 음양개념이 대순진리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그것을 사실화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2. 대순진리에 나타난 합덕

앞서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개념에서도 살핀 것처럼 대순진리에서는 음양의 개념과 더불어 중시되는 것이 조화와 합덕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장에서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대순진리가 지니는 음양합덕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합덕은 “덕을 합한다”는 뜻으로 그것은 단순히 음양의 합(陰陽之合)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음양 각자가 지니고 있는 덕을 합덕시키는데 중

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합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德에 대한 대순진리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 덕(德) 의미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德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생의 덕(好生之德-행록 1-11, 교운 1-16)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교운 1-66)

言德(교법 1-11, 1-26, 2-5)

덕 닦기를 힘쓰라 修德(교법 1-29, 2-9)

陰德(교법 2-68)

功德(교법 2-18, 3-44, 예시 22)

이처럼 대순진리에 나타난 덕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제께서는 호생의 덕을 강조하시며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것의 실행을 강조하신다. 또한 덕은 도로부터 생겨나서 만물을 화육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덕을 닦는데 힘을 기울이고, 덕을 닦으면 복을 받으며, 그것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언덕(言德)을 강조한다. 그리고 陽德보다는 陰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음덕이 크다) 있는데, 음덕에 힘쓸 것을 당부하심이 그 중요한 예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선천세계가 곁으로 드러나고 세상을 지배했던 강한 힘을 지닌 양덕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시는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음덕을 강조하시어 그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 합덕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상제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상선령신들을 비롯한 그 외의 존재들이 배푸는 功德에 대한 報恩의 태도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德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⁷⁹⁾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실천적인 實例를 살펴보면 대순진리회의 훈회에

79) 앞서 살핀 현무경에 나타난 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도에 덕이 있고, 덕에 化가 있고, 化에 기쁨(育)이 있다)]는 덕은 도로부터 근원하여 만물을 化育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덕은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리로도 이해될 수 있다.

나타난 “남을 잘되게 하라”라는 의미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닌 덕을 음양합덕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음양의 덕이 합해질 때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의 부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단순한 陰陽의 습에서는 그것이 부합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합(合)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부조화나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합덕은 단순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양의 합에 비중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닌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을 합하여 보다 좋은 긍정적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에 나타난 합덕은 음양이 각기 지니고 있는 덕성을 합하는 것으로, 음양의 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합덕되어 무한한 발전이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나 여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음양은 각기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성,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양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덕성이 합해질 때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합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양 각자가 지니고 있는 덕이 합해져 그것의 발현을 통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대순진리에서는 정음정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나. 습德의 의미

합덕의 이해를 위해 앞장에서 살핀 음양론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합덕에 관한 이해를 통해 음양합덕이 지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전경』에 나타난 합덕과 관련한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 (제생43절)

위의 내용을 참고할 때 대순진리에 나타난 합덕과 유사한 내용으로는 상합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음양상합의 결과는 예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변화의 도를 있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상합의 결과는 변화의 도의 출현이며, 그것은 또한 합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변화의 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은 대순진리에 나타난 합덕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변화라는 내용에서도 이해되는 것처럼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변화는 끊임없는 재창조를 통한 재생(再生)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대순진리에 나타난 교리체계내에서 가장 큰 범주로 파악한다면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양상합(합덕)의 결과는 후천의 새로운 도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전경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합덕과 관련한 전체적인 이해를 앞서 전술한 [음양경]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천지의 일은(天地之事) 모두 이(皆是) 음양 가운데 이루어짐이 있고,
(陰陽中有成)

만물의 이치(萬物之理)는 모두 이(皆是) 음양 가운데 이루어짐이 있다.
(陰陽中有遂)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天地以陰陽成變化)

신과 인간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神人以陰陽成造化)⁸⁰⁾

위의 내용을 볼 때 천지의 일(천지공사)과 만물의 이치(도수)가 모두 음양의 원리에 의해 주관되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천지는 음양으로 변화를 이루고 그에 속한 인간과 신은 음양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내용에 근

80)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전경, 교운 2장 42절.

거해 볼 때, 앞서 전술한 새로운 변화의 도(유변화지도)를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음양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음양의 합덕 또는 상합인 것이다. 따라서 합덕은 그것을 이루는 실제적인 원리이며, 방법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양의 원리는 결과적으로 상합, 또는 합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전술한 음양론 에서도 살핀 것처럼 음양은 그 특성으로 인해 음양의 상호 작용을 이루며 작용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새로움을 창조한다. 또한 그 새로운 창조는 변화를 이루어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켜 새로움을 창출하는 기능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기능이 상합 또는 합덕인 것이다. 따라서 음양에 의해 새로운 변화의 도(후천선경, 또는 후천의도)를 창출하는데 합덕의 중요한 역할을 지니는 것이며, 그 방법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상제께서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천지공사와 도수의 조정과 정리를 위한 공사를 펼치셨다고 보았을 때, 그 방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원리를 음양의 합덕, 또는 음양의 상합적 원리에 따라 만드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경에서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공사 1장 32절)

… 후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공사 2장 16, 17절)

위의 내용에서도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상제께서는 후천의 새로운 예법을 세우기 위해 건·곤 이라고 표현되는 대표적인 음양의 위치를 바로잡는 도수를 펼치셨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합덕의 원리가 숨어 있음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음양의 합덕과 상합이라는 원리에 의해 펼쳐진 건곤의 조정은 새로운 예법이라는 창조(유변화지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양도수의 조정은 후천선경(변화지도)을 건설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이며, 원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변화지도) 전체적 실현을 위한 천지공사중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음양상합 또는 합덕의 원

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음양합덕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것을 아래의 『전경』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德則 天德 地德 人德也 統合謂之 大德也] (제생 43절)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덕의 구체적인 목적은 구체적으로 천·지·인에 잠재한 덕을 통합하여 대덕(大德)⁸¹⁾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大德은 천·지·인 삼계의 덕을 통합하여 완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천지에 있는 모든 덕을 합할 때 대덕이 실현되며, 동시에 대덕의 실현은 음양합덕의 목적이며 결과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천세계는 음양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한 합덕의 실현이 불가능한 세계였으며, 합덕의不在는 부정적인 한계상황을 연출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는 후천이라는 새로운 세계 또는 새로운 변화적 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합덕의 원리를 제창하셨던 것이고, 그 합덕의 방법적 원리를 음양의 변화원리에 기초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공사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의의이며, 원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공사를 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음양합덕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합덕은 正陰正陽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전술한 것처럼 선천세계는 음양합덕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억음존양과 남존여비로 표현되는 세상이었으므로, 후천에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 음양의 조화와 평등함이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음양합덕의 결과와 조건은 정음정양으로 나타난다. 정음정양은 음과 양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음양이 합덕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며, 동시에 그것은 일음일양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⁸²⁾

81) 일반적으로 대덕은 천지조화의 의미로 나타난다. 민중서림, 『漢韓大辭典』, (서울:민중서림, 1990), 302쪽 참조.

82) 공사 2장 16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는 음양도수를 조정하는 공사와 관

정음정양은 일음일양이라는 표현과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음정양은 음과 양을 바로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음과 양을 바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음양의 조화를 통한 무궁한 새로움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후천세계는 선천세계와는 다르게 상생적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이며, 상생이 추구하는 목적은 상극적 원리에 의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가 아닌 상생을 통한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생적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조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음정양 즉 음과 양이 바른 위치나 관계에 놓여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또한 정음정양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일음일양이 있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도를 정의하는 중요한 설명이기도 하다.⁸³⁾ 즉 음양이 동등한 위치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도를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음정양 또는 일음일양은 앞서 살핀 것처럼 [有變化之道]라는 음양합덕의 결과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새로운 변화의 도를 출현하시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이 주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에 나타난 결과는 합덕의 방법과 목적 또는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음양의 상합(합덕)을 통해 변화의 도를 출현하게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음정양은 음양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一掃할 수 있는 특징 있는 대순사상적 표현이며, 구체적 실현원리이며,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음양은 앞서 전술한 내용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相對的 성격을 지닌다고 있으므로 음양의 작용에 따른 변화의 도를 출현케 하기 위해서는 정음정양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완전함이 실현된다는 [음양경]에 나타난 음양의 의미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음정양의 실현은 모든 만사를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기초적 원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련하여 그에 참석한 종도(문공신)가 주장한 一陰一陽의 원리를 받아들여시고 그것을 후천의 음양도수를 끝내시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일음일양은 정음정양과 상통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83) 一陰一陽之謂道(繫辭上傳)

이러한 합덕의 원리를 통해 볼 때 그것의 결과는 억음존양과 남존여비로 표현되는 선천세계의 한계성 음양의 부조화를 극복하고 정음정양의 실현과 함께 대덕을 실현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후천선경을 이루는 기초적 원리이며, 방법임을 알 수 있으며, 음양이 우주만물을 가장 큰 단위로 대별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합덕은 음양의 구체적 원리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음양의 구체적인 생성·변화·발전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과 합덕은 만유를 이루는 가장 큰 원리이며, 존재적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상제께서는 음양의 합덕이라는 원리를 통해 도통진경을 실현하시고자 하셨던 구체적 이해를 우리는 합덕의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음양적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 선천의 현실(억음존양·남존여비)을 이해하여 볼 때 합덕의 필연성과 그 방법, 그리고 결과를 통한 대덕의 실현과 정음정양의 추구를 통해 종지를 통한 대순진리적 이해와 더불어 표현된 조화적 세계인 도통진경의 실현세계인 후천선경에 대한 이해를 합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獨陰獨陽일 경우 그 속에서는 의미나 존재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이 조화나 합덕을 이룰 때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음양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양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덕성이 합해 질 때 결과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양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덕성의 함양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음양의 합은 의미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합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을 합하여 완성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음양합덕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며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음양관념은 오행설과 연계하여 동양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사상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동양학의 기초이론이 되었다. 물론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과학인가 또는 미신인가에 관한 의문이 남아있지만 동양의 역사에는 그러한 질문이 용납되지 않았던 장구한 역사를 지녔던 시대가 존재하였다.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그러한 현상의 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나타났던 순환론적 세계관을 지닌 음양론이 합리적인 세계관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자, 본래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귀납되었던 이 체계로 부터 모든 것을 연역해 내기 시작하였고, 올바른 추론과 주관적인 억측이 이것으로 부터 나왔고, 마침내 거대한 우주와 미세한 생물구조가 음양론을 통해 해명되었으며, 과거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추측과 생존을 위한 모든 양식이 이 체계로부터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실로 이것은 그간 동양의 천문, 지리, 역법, 기상, 의술, 문자, 제도, 역사에 이르는 세계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 열쇠였다. 그래서 음양론은 단순히 세계관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화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양론에 입각한 세계관은 과거 사람들의 실천을 제약하는 하나의 힘이었고, 문화의 총체적인 것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음양관념의 내용은 대순진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실례를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종지인 음양합덕일 것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은 첫 번째로 음양관념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지극히 對待的인 것으로 나타나며, 기존에 나타난 음양관념이 확대되어 나타난 극치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대순진리의 교리 체계 속에서 합덕이라는 관념과 융화되어 더욱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상제께서도 유불선 음양참위를 통독하셨다는 기록이 전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음양관념은 대순진리의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음양관념의 시원이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금 우주를 설명하고 인생을 설명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원리이며, 의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의중 하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세계관이나 우주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선천과 후천이라는 세계관 역시 음양적 관점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거기에는 생장염장이라는 순환적 사관과 함께 유기체론과 순환적인 면모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경에 나타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脣亡則齒寒)는 표현처럼 이러한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는 앞서 본문의 내용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본 음양경에 나타난 소위 팔음팔양으로 대표되는 것들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살필수 있었다. 이러한 인과성은 단선적 인과율을 벗어난 부분과 전체 그리고 부분과 부분의 연관과 통일이라는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면서 각각의 종지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였다.

합덕론에서는 변화의 관념이 풍부함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합덕론이 나타내고자 하였던 ‘전체’가 결국은 자연의 변화 자체이거나 그를 통해서 관찰되는 일정한 경향성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어떤 의지이든 물질적 법칙이든 간에 자연속에 나타나는 끊임없는 생명력, 곧 ‘끊임없는 생성’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덕성이든 도덕적 이법성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는 주체적 원리가 합덕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합덕은 만물을 창조해 내는 근원적 원리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관념은 대단히 풍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음양합덕론에 나타나는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선적이거나 나선형의 모양을 띠지 않으며, 원을 그린다. 곧 원운동이 음양론의 변화적 도식이며, 그것은 순환론의 도식이기도 하다. 즉 일음일양과 정음정양의 원리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것이며 동시에 합덕을 이루어 영원한 발전을 추구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영원성을 상징하는 원과 같은 도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양론에 나타나는 ‘動態的 平衡’은 대순진리에서 나타나는 음양합덕론이 나타내는 세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세계라는 動態的 특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움직이지 않는 平衡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해 성스러움을 곧 잘 부여했던 동양적 사유를 반영하는 결과이며, 그것을 통해 음양설은

완결되고 완전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대순진리에서는 기존의 상대적인 원리하에서 만물을 해석하고 나타내려 했던 음양관념을 한층 더 변화발전시켜 합덕이라는 새로운 원리로 그것을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음양의 완전한 실현이며,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순진리에 나타난 음양관념의 특성이기도 하다. 대순진리에서는 음양합덕의 개념을 이상 세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천지공사의 원리에 적용시켜, 그것의 실제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즉 기존의 음양관념이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이나 우주에 관한 의문과 해답을 던져준 원리로 인식된 체계였다면 대순진리에서는 그러한 체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 보다 더 力動的인 면에 주력하여 그것을 運動化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음양론은 기존의 한계의 틀을 벗어나 대순진리에서 그 빛을 찬연하게 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 대순사상학술원 『大巡思想論叢』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6
- 『說文解字』 『周易』 『詩經』 『書經』 『史記』 『儀禮』
『老子』 『文選』 『漢書』 『春秋左氏傳』 『五行傳』 『易傳』
『墨子』 『論語』 『中庸』 『孟子』 『莊子』 『禮記』 『荀子』
『韓非子』 『戰國策』 『呂氏春秋』 『晉書』 『道藏』 『通書』
『程氏遺書』 『國史』 『朱子語類』 『潛夫論』 『楚辭』
『易緯乾坤鑿圖』 『朱子大全』 『洛書靈准聽』 『易說』 『張子語錄』
『正蒙』 『宋史』 『周易參同契』 『左傳集解』 『人物志』 『白虎通義』
『春秋繁露』
- 왕중, 『述學補遺』
- 高亨, 『周易大傳今注』
- 양계초, 풍우란 외 지음, 김흥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신지서원,
1993)
- 동서문화사,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서울:동서문화사, 1996)
- 부산대학교, [道家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1997)